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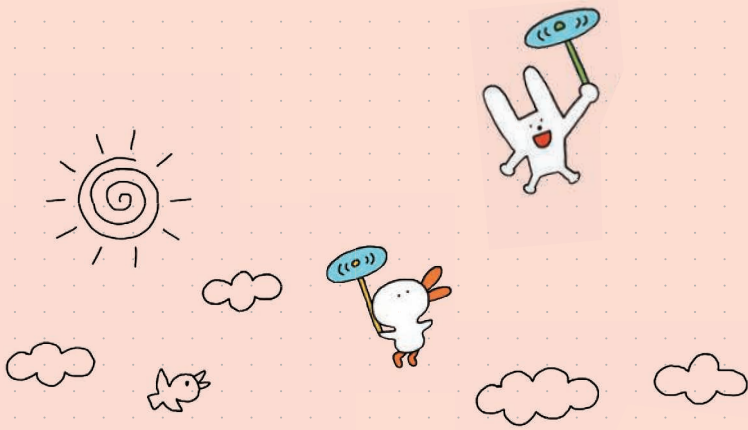
중학교

국어 1-2



신유식 정미선 이필규 김영찬 전경원
윤인희 박선주 김정희 이은화 나단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듣고 말하고 읽고 씁니다.
이처럼 말과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것이면서, 생각을 키우고, 사람과 사귀고, 사회를 유지하고,
문화를 가꾸어 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는 이러한 우리말, 우리글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국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표현하고, 아울러 자신의 세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여러분이 잘 익힐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이끌어 낼까?”
- “이 활동이 재미있으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
- “핵심 개념과 원리를 잘 익히면서도 꼭 알아야 할 것만 담아낼 수는 없을까?”
- “어떻게 하면 배우는 과정도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교과서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수한 전문 편집진이
온 힘을 다해 만든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과서를 발판으로 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힘이 무럭무럭 자라고
국어를 통해 보는 세상이 더욱 재미있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 봅니다.

저자 모두가



이 책의 차례

1 독서와 연극

문학 읽기

독서와 연극 12쪽

① 갈등이 드러난 소설 읽기

하늘은 맑건만_현덕

②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토끼와 자라_엄인희

● 창의·융합 활동 - 연극 전단 만들기 66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연극이 된 우리 고전 70쪽

2 간추리고 쓰고

읽기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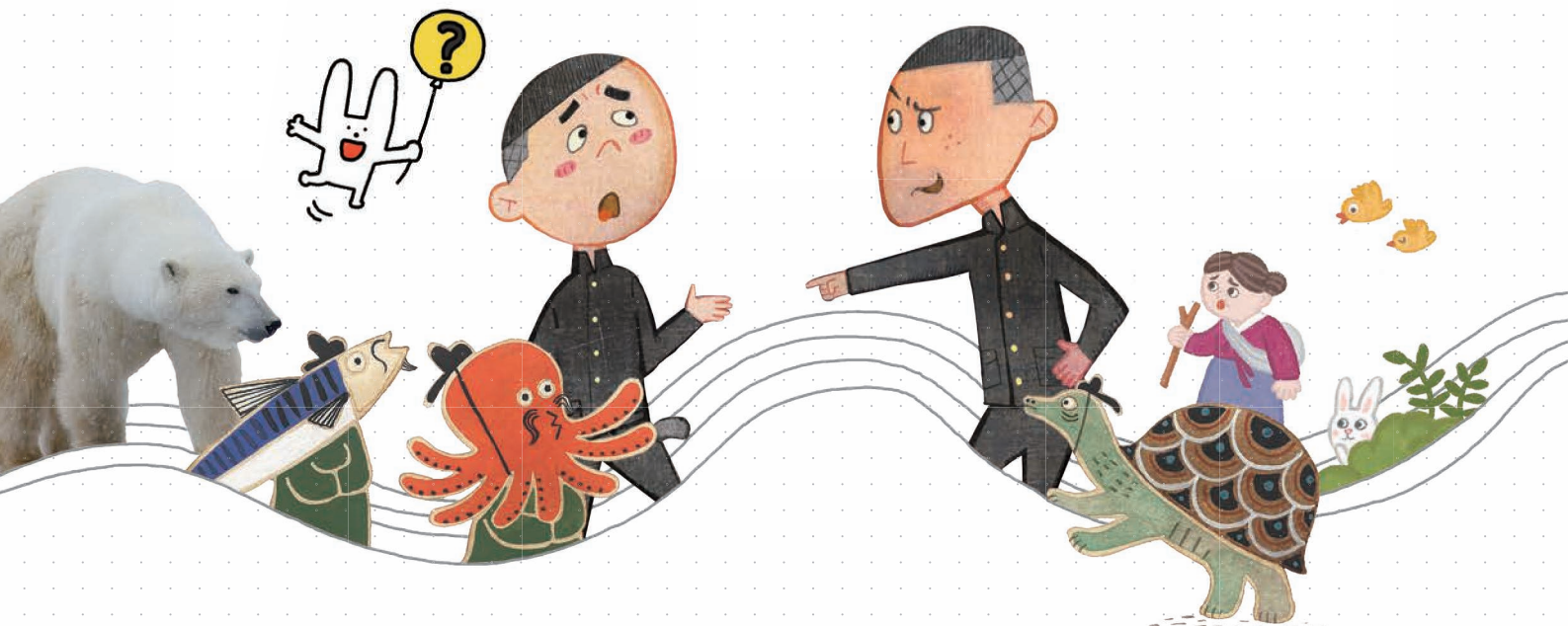
(1) 요약하며 읽기 74쪽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_고현덕 외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96쪽

● 창의·융합 활동 - 그림 소개하기 110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생활 속 요약, 어디까지 해 봤니? 114쪽



3 언어의 세계 문법

(1) 언어의 본질	118쪽
(2) 단어의 갈래	136쪽
• 창의·융합 활동 - 신기한 발명품 이름 짓기	158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이름 짓기의 힘	163쪽

4 다양한 의사소통 듣기·말하기 쓰기

(1) 토의하기	166쪽
(2) 매체로 표현하기	184쪽
• 창의·융합 활동 - 학급 영상회 열기	202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청소년이 만든 영화 살펴보기	206쪽
 부록	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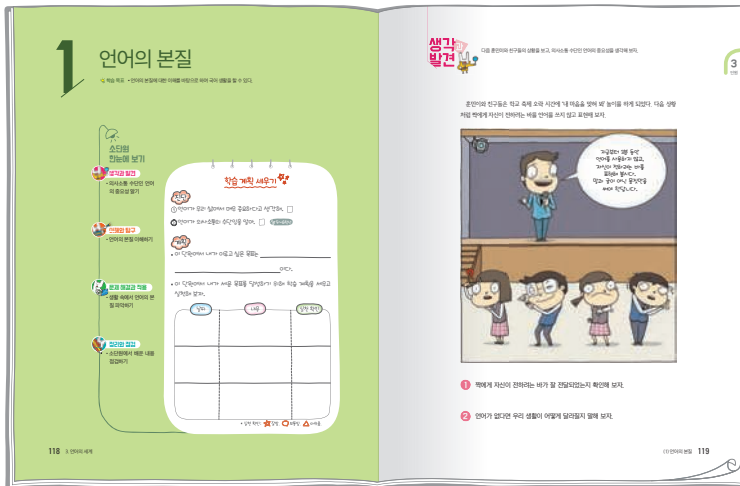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둘러보고,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단원
들어가기



소단원을 공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학습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요. 각 소단원은 독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의 영역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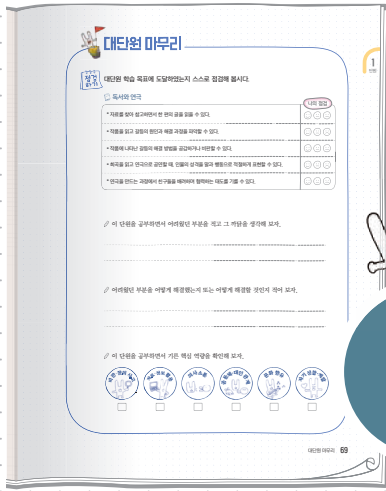
생각과
발견

작품
읽기

이해와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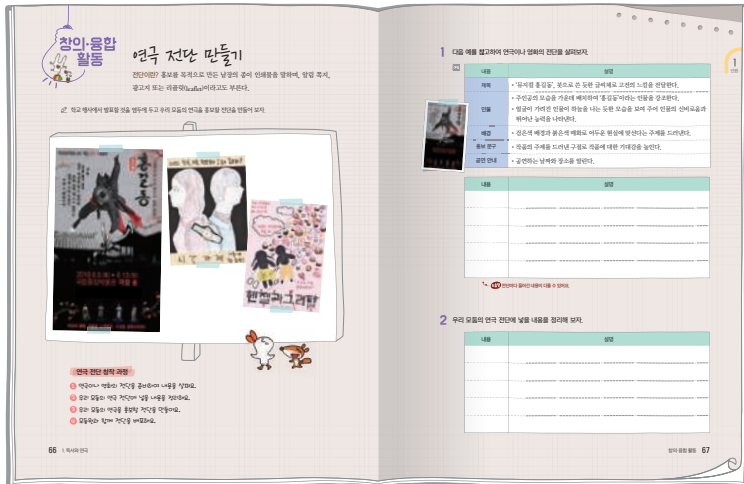
문제
해결과
적용

정리와
점검



대단원 목표에 도달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창의·융합 활동



대단원을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과 다양한 영역의 교과를 융합하여 수행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되는 다양한 실생활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핵심 역량’을 길러요.



상황, 자료, 담화, 글을 주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들 줄 알아요.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말과 글,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이해하고 자신과 남과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도우면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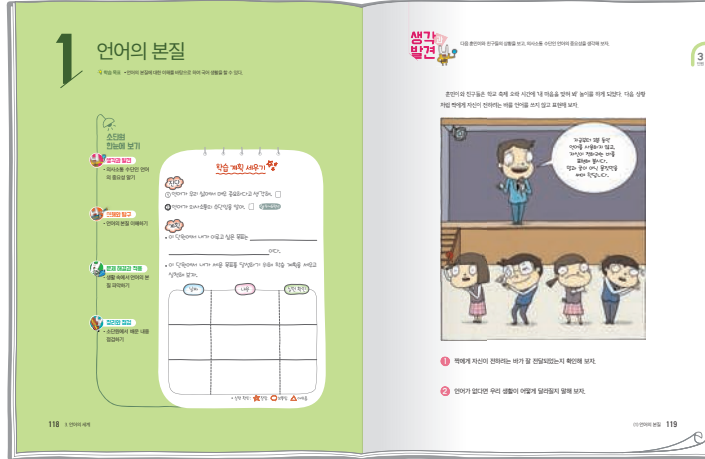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생산할 수 있어요.



삶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새기며,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소단원 공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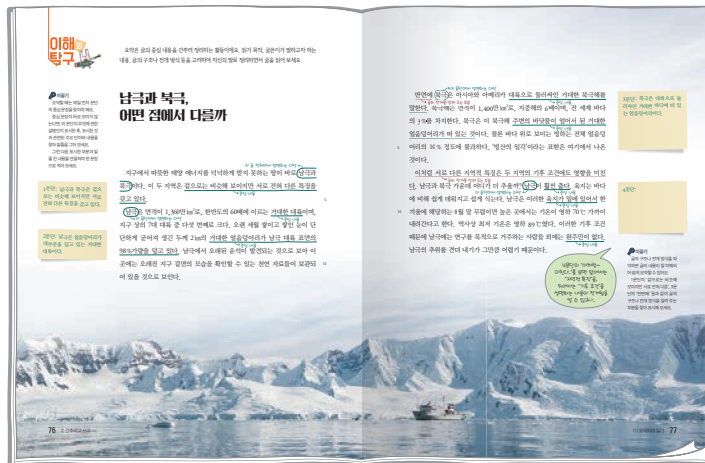


소단원의 시작

‘소단원 한눈에 보기’로 소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해요. ‘학습 계획 세우기’에서는 이전에 배운 내용을 진단체 보고, 교과서를 미리 살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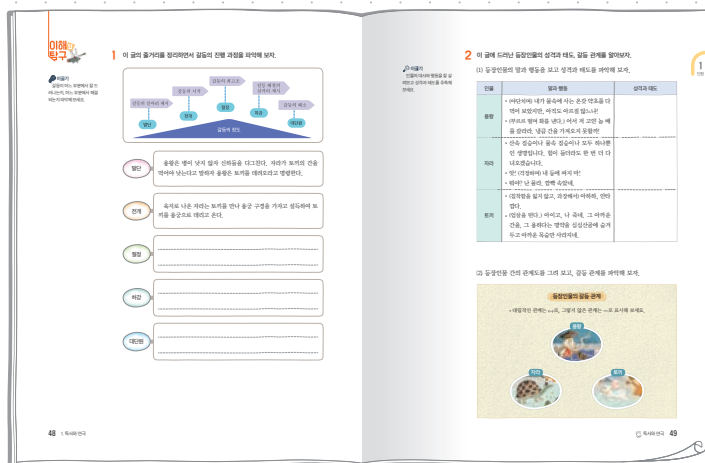
생각과 발견

이 단원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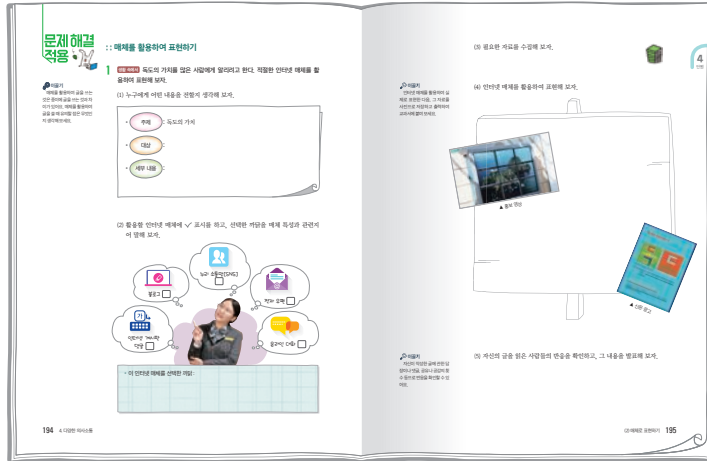
작품 읽기/글 읽기

문학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글을 감상하고 읽어 요. 글을 읽은 다음에, 자신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도 직접 만들어 봐요.



이해와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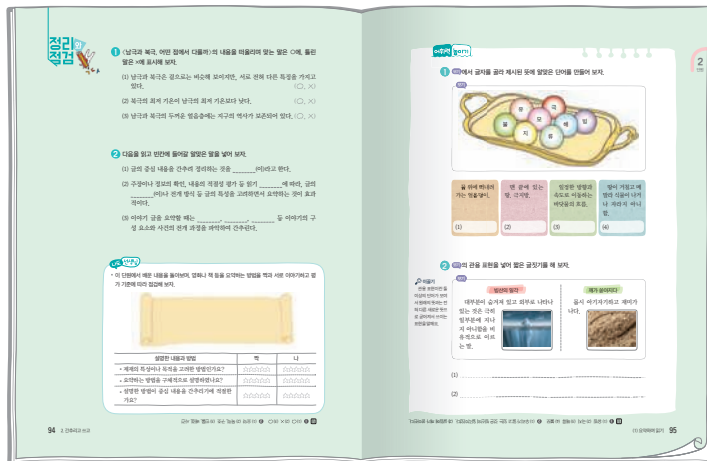
활동하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과 적용



'이해와 탐구'에서 익힌 내용을 여러 가지 글이나 생활 문제에 적용하고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요.



정리와 점검



정리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과 학습 목표를 점검해요.

'나도 선생님'에서는 배운 내용을 친구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휘력 높이기'에서는 다양한 퀴즈를 풀면서 앞에서 익힌 어휘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공부를 도와줘요.

이끌기

매체란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활동하면서 알아야 할 요소와 생각할 점을 짚어 줘요.

창의 질문

이 글을 읽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예) 마지막에 토끼와 자라가...
...는 어떤...
...는 어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활동해요.

알아두기

학습 목표와 관련된 단원의 주요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1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독서와 연극

문학

읽기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내 간을
지키고 살 테야.



독서와 연극

대단원 학습 목표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희곡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
-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삶을 다룬 작품에서도 갈등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 희곡, 또는 영화나 연극 등 다양한 작품에 담긴 갈등을 접하면서 그것을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요.

이 단원에서는 갈등이 잘 드러난 소설을 읽고, 작품에 드러난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연극을 만들며 소통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넓히고 자신을 새롭게 계발하는 등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독서와 연극

- ☀ 학습 목표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희곡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
 -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갈등의 경험을 떠올려 보기



이해와 탐구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소설 감상하기
- 희곡의 갈등 양상과 연극 활동 이해하기
-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글 읽기



문제 해결과 적용

- 갈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정리와 점검

-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 뒤,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 ☐ 5~6학년
- ②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 5~6학년
- ③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찾으며 글을 읽곤 해. ☐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정음이는 자명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지만 조금 더 누워 있을지, 지금 일어날지 고민 중이다.



- 정음이와 같이 자신이 겪었던 크고 작은 갈등을 이야기해 보자.



1 갈등이 드러난 소설 읽기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여 소설 〈하늘은 맑건만〉을 감상해 보세요.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잘 모르는 내용이나 낯선 단어가 나오면 도서관, 인터넷, 사전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읽도록 해요. 또한, 중간중간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보다 집중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은 맑건만

현덕(1909~?)

중문 안 안반 뒤에 숨기어 둔 공이 간 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 갔을까?’

5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 일이다.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일과 다름없이 안마당에서 화초분에 물을 준다. 그러면서 연해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다.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10

‘필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집어 갔기 쉽지. 그렇잖으면 작은어머니가 알고 가만있을 리 있나.’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15

- 중문(中門): 가운데뜰로 들어가는 대문이나 대문 안에 또 세운 문을 가리키는 말.
- 안반: 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
- 빈탕: ① 땅콩, 잣, 호두와 같이 껍데기가 딱딱한 열매가 속에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아니하고 빈 것. ② 실속이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간직해 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5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 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시 글이 읽어지질 않는다.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 오라고 숙모에게 지전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동구미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돈으로 아, 지전 아홉 장과 그 위에 은전 몇 닢을 얹어 내주는 것이 아닌가.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일 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문기는 주뼉주뼉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일 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연해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 도시(都是): 도무지. 아무리 해도.
- 동구미: 짬으로 동글고 율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등을 담는 데에 쓰인다.
- 주뼉주뼉하다: 주뼉주뼉하다. 어쭈거나 부끄러워서 자꾸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다.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 칸 앞을 서서 동무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상한 일 아냐?”

5

“뭐가 말야?”

“고길 사러 갔는데 말야. 난 일 원짜리로 알구 냈는데 십 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야.”

“정말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또 고기를 보였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꿈벅꿈벅 무슨 궁리를 하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 봐라.”

“어떻게 말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어머니에게 주거든.”

“그리고 어떡해?”

15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헐 일이 있으니.”

“무슨 헐 일?”

“글쎄 그러구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두 번 자세히 세어 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20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

14~17쪽

알고 싶은 어휘,
찾고 싶은 자료

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5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하기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싶었다. 그리고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이래서 두 소년은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10 그래도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리었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의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15 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 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이것을 놀려 아이들에게 일 전씩

20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주리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 조였다.



●행길: 한길,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

14~17쪽
읽으면서
생긴 질문

예 문기가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행길로 나오자 기쁨으로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 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두 번 세 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5

댓돌 위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방 뒤에 숨겨 두었던 공이 와 있다. 상을 물릴 입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에 매일 갔었니?”

10

“네.”

삼촌은 상 밑의 그 공을 굴려 내며,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이것두?”

15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네.”

“수만이란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인지 몰라두 이 공은 오십 전은 족겠구나. 이걸 못 쥐두 일 원은 넘겨 족겠구.”

그리고 삼촌은,

20

“수만이란 뭇 하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숟가락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족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기야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것이고 덩적덩적 받는다는 것두 좀 생각해 볼 일이지.”

25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너 요샌 저녁두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두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 덩적덩적: 남에게 자꾸 불임성 있게 구는 모양. 여기서는 잇따라 왈각 달려들어 냉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을 뜻하는 ‘덩적덩적’의 뜻.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엄한 어조로,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구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구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열려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구 내 모양은 뭐냐?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쓰는데 너두 그 뜻을 받아 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뒤통 맘 한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 오던 그편에 정면으로

• 뒤통: 큰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여기서는 '자칫'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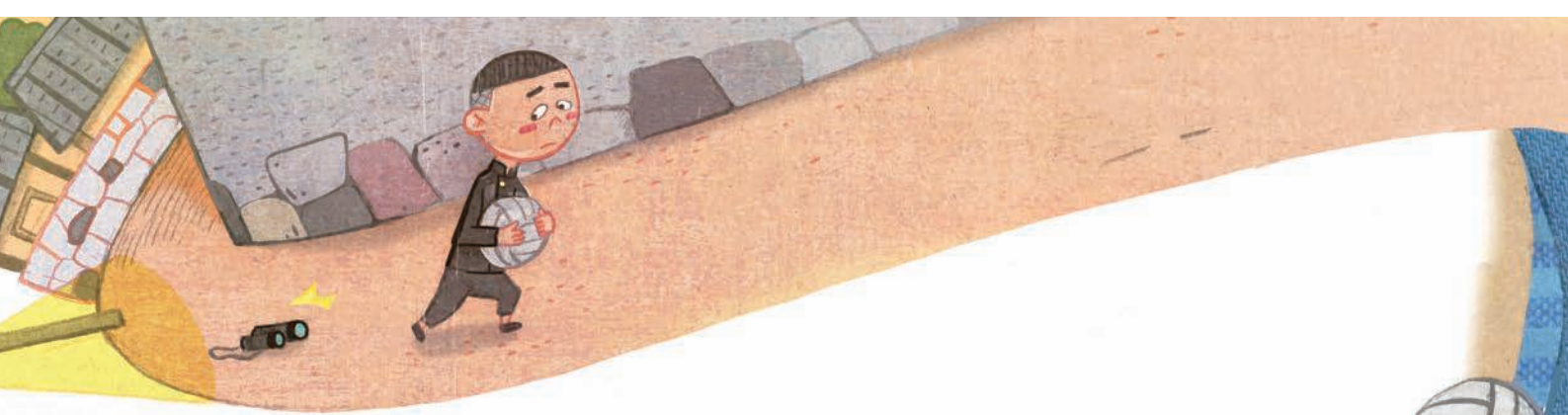
제 몸을 세워 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 냥만 냥 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 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엇그제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낮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 들고 문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 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컴컴해질수록 더 허영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에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꺾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쌍안경이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화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즈음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인 양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하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영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렸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 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동실동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 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 여의다: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 남루(襤褸)하다: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 동: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동안. 또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사이.

18~21쪽

알고 싶은 어휘,
찾고 싶은 자료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안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 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아까 물 위로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십 리고 이십 리고 멀리
5 떠갔을 듯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백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10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나



18~21쪽
읽으면서
생긴 질문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킁킁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노이 집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길을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5

약조한 환등 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 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언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나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 내리며 물러선다.

10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뭐 말야? 환등 틀 사기 싫단 말야?”

“난 이제 돈 가진 것 없다.”

15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런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20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안마당으로 던져 주고 오는 길야. 공두 쌍안경두 버리구.”

● 금: 시세나 흥정에 따라 결정되는 물건의 값.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
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5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
고 울상을 한다.

10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막 꾸중 듣구. 그리고 나두 인젠 그런 건 안 헐 작정
이다.”

“그래도 나하구 약조현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이리 내.”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없대두 그래.”

15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멍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두 [●]느물거든.”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
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20 “넌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 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느물다: 말이나 행동을 능글
맞고 흥하게 하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백묵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했다.’ 하고 쓰여 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잡화상 빈지 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 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게.”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그리고 수만이는 추군추군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리었다.

철봉 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달음박질을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리고 으스스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맘대루만 허지. 나두 내 맘대루 할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

- 판장(板牆): 널판장. 널빤지로 친 울타리.
- 빈지: 널빈지. 한 짝씩 끼웠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든 문. 흔히 가게에서 문 대신 쓴다.
- 무춤하다: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하던 짓을 멈추다.
- 추군추군하다: 추근추근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검질기고 끈덕지다.
- 다리오금: 무릎 뒤쪽의 오목한 부분.
- 풍기다: (소문을) 퍼뜨리다.





희 집에서 쫓겨날 것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어요 하고는 또 풍길 테다.

사실 그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5 “김문기는 ○○○했다.”

가 커다랗게 쓰여 있다.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나 하고 쓱쓱 지워 버리고는 고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의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10 한층 심했다. 두어 칸 문기를 앞세워 놓고 따라오면서 연해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 파(罷)하다: 어떤 일을 마치거나 그만두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 하구 똑
바루 써 놀 테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엘 들어섰다. 숙모는 5
뒤꼍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 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6. 불장 안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문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10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
을 던져 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거리 하나를 지났다. 15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

• 조지다: 일이나 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다.

• 불장: 불장. 부엌 벽의 안쪽
이나 바깥쪽에 붙여 만든 장.



22~27쪽

알고 싶은 어휘,
찾고 싶은 자료

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기는 몰래 작은어머니 돈을 훔쳤다. 그러나 값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값
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값으면
고만 아니냐.’

5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땀땀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
어갈 수 있을 만한 뱃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
다 보고,

10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흑 붓장 안의 돈 봤니?”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15 “학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양큼헌 년이द्र라. 낮에 내
가 뒤꼍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썽 돈을 집
어 갔구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값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어 본다.

20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
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
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집에까지 들
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
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 뱃심: 염치나 두려움이 없이
제 고집대로 버티는 힘.
● 들창: 들어서 여는 창.

22~27쪽
읽으면서
생긴 질문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 뜨다
가는 고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엘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이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
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
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
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
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
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
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지껄이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
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 수신(修身): 일제 강점기 때
교과목 중 하나. 지금의 도덕
과목에 해당함.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떼떼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떼떼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오후 해 저물녘이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5 집 앞을 왔다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막막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 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
 10 날락하고 그리고 다음엔 손님이 왔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놀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
 15 은 멀어진다. 장차 집엘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뽕뽕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하더니 갑자기 귀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
 20 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 불이 밝아 눈이 부시었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 번 웃어 주려면 5
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 본다.

“작은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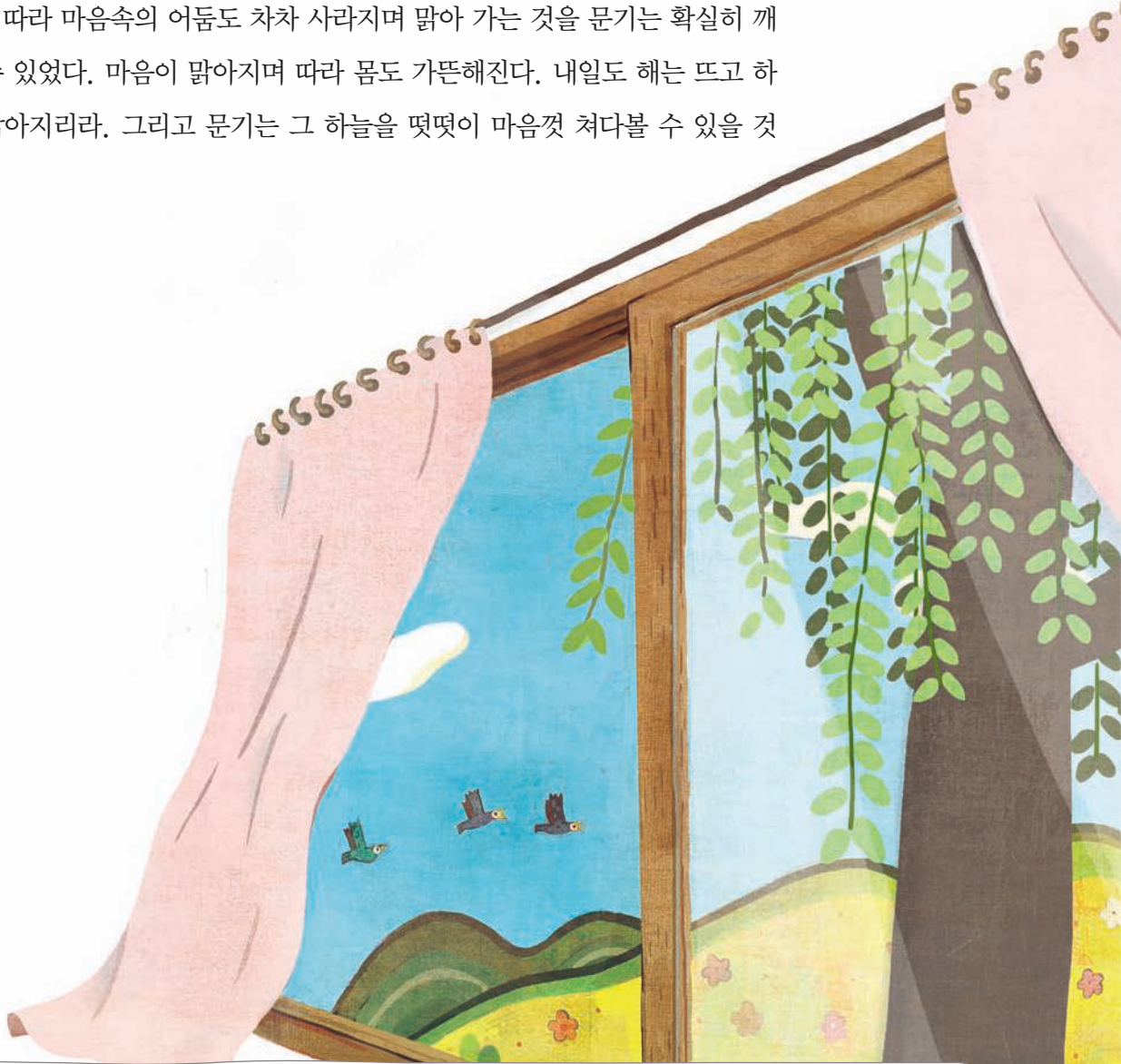


28~31쪽

알고 싶은 어휘,
찾고 싶은 자료

★ 자신이 찾은 어휘와 자료를 모둠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 마디 한 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일 원을 십 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 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 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 꺼풀 한 꺼풀 벗어
5 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 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며 따라 몸도 가뜩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떼떽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28~31쪽
읽으면서 생긴
질문

- ★ 글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들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 봅시다.
- ★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봅시다.

1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해 보자.

(1) 이 글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고, 사건의 흐름에 따른 문기의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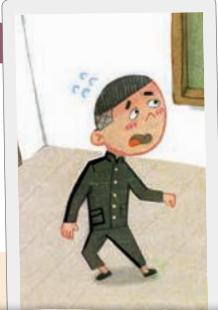
기쁨,
후련함

마음이
무거움.

(2) ㉠에서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문기의 행동을 평가해 보자.

갈등의 원인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쓴 후 삼촌에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갈등의 해결 과정	
문기의 행동 평가	

5



돈을 요구하는 수만
이에게 괴롭힘을 당함.

6



옷장 안의 돈을 훔
쳐 수만에게 줌.

7



누명을 쓴 점순이를
생각하며 괴로워함.

8



삼촌에게 _____

나

(3) 나에서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문기의 행동을 평가해 보자.

갈등의 원인	
갈등의 해결 과정	
문기의 행동 평가	

(4) 이 글의 제목인 ‘하늘은 맑건만’의 뜻을 이야기해 보자.

이끌기

문기와 수만이의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격과 태도를 추측해 보세요.

2 다음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파악해 보자.



돈을 쓰면 어떻게 도니?

영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안마당으로 던져 주고 오는 길야. 공두 쌍안경두 버리구.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핏계가 났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야.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막 꾸중 들구. 그리고 나두 인젠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문기의 성격과 태도

수만이의 성격과 태도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보기의 질문에 답해 보자.

이끌기

인물의 가치관과 행동을 여러 각도에서 공감적·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만약 자신이 문기라면, 만약 문기가 다른 행동을 했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 문기의 가치관과 행동에 공감하는가, 공감하지 않는가?
- 만약 자신이 문기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 갈등 상황에서 문기가 다른 행동을 보여 주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알아두기

● 갈등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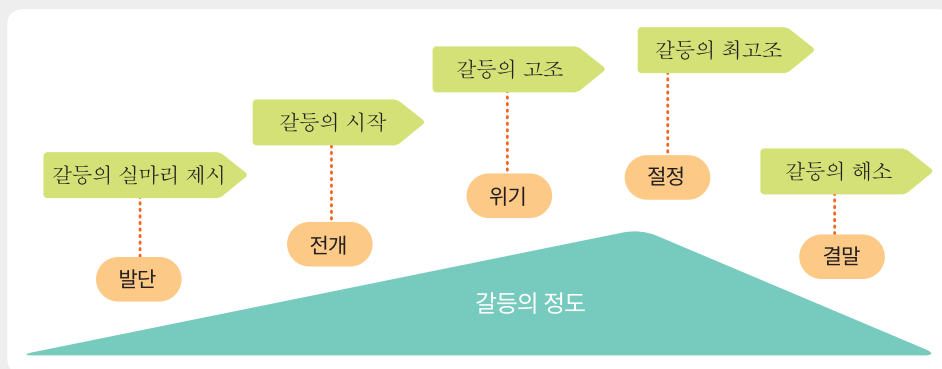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속이나 등장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이르는 말.

● 갈등의 종류

내적 갈등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함.

외적 갈등 인물과 다른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함.

● 갈등의 정도에 따른 소설의 사건 전개



●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글을 읽는 효과

- 낯선 용어나 개념, 모르는 정보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음.
-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음.
-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며 독서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음.

2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1학기 때는 독서 활동으로 한 권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번 학기에는 갈등이 잘 드러난 소설을 읽고 연극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토끼전>을 함께 읽은 규빈이네 모듬은 소설에 드러난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연극 준비하기

이끌기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희곡으로 고쳐 쓰는 것을 '각색'이라고 해요.

연극으로 무엇을 보여 줄까?

“소설 속에서 두드러진 갈등을 연극으로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아. <토끼전>을 읽었을 때 우리는, 용왕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등을 떠미는 신하들의 갈등, 그리고 토끼와 자라, 용왕의 갈등을 흥미진진하게 느꼈어. 이런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극을 해 보자.”

연극의 내용은 어떻게 준비할까?

“연극을 하려면 먼저 대본이 필요해. 대본을 만들 때는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줄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뽑아 그에 맞게 성격과 특징을 정하면 돼.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우리가 읽은 소설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고등어, 꼴뚜기, 뱀장어 같은 물고기의 특징을 찾아 조사해 보자. 특징을 살려 소품을 만들면 연극이 더 실감 날 거야.”

“그런 다음 모듬 토의를 하면서 한 장면씩 이야기를 꾸미고, 대사와 지문을 넣어 대본을 완성하는 거야.”

연극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장인물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인물의 갈등 관계가 잘 드러나게 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고전 소설이지만, 소설에 나온 말이나 행동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면 더 자연스럽게 재미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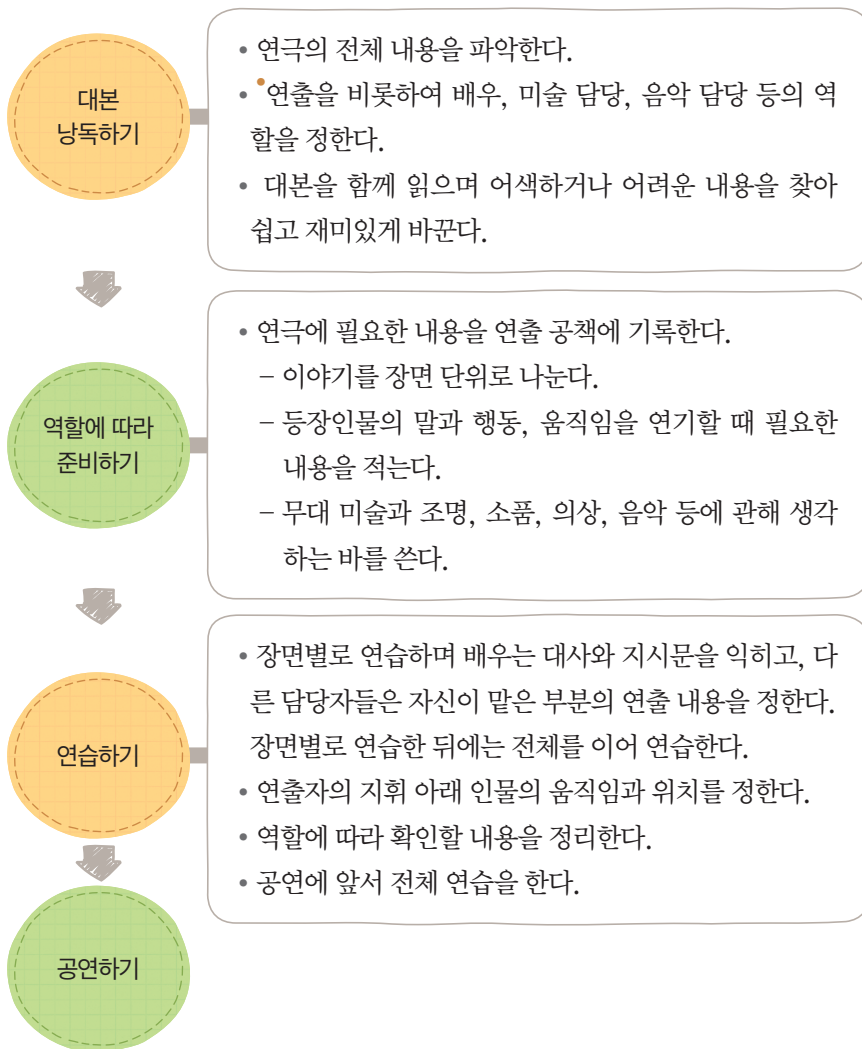
이끌기

학교에서 연극을 할 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테면 교실 연극에서는 무대 조명을 고려하기 어렵고, 무대 장치도 최대한 교실 환경을 활용해야 해요.



🔑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줄거리와 인물,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연극을 할지 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연극을 준비하면 돼.”



🔍 이쯤에

대본을 크게 인쇄해서 옆에 여백이 많이 나오게 하면, 대본의 여백과 뒷면을 활용하여 연극에 필요한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이렇듯 연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연출 공책이에요.

• **연출(演出)**: 연극이나 방송극 등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등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이나 그런 일을 맡은 사람.

대본을 읽으며 연출 공책 살피기

토끼와 자라

엄인희(1955~2001)

등장인물: 토끼, 자라, 용왕, 문어, 뱀장어, 전기뱀장어, 고등어, 꿀뚜기, 도루묵
장소: 바닷속 궁궐(용궁), 산속

제1장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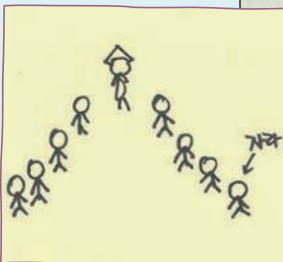
(바닷속 궁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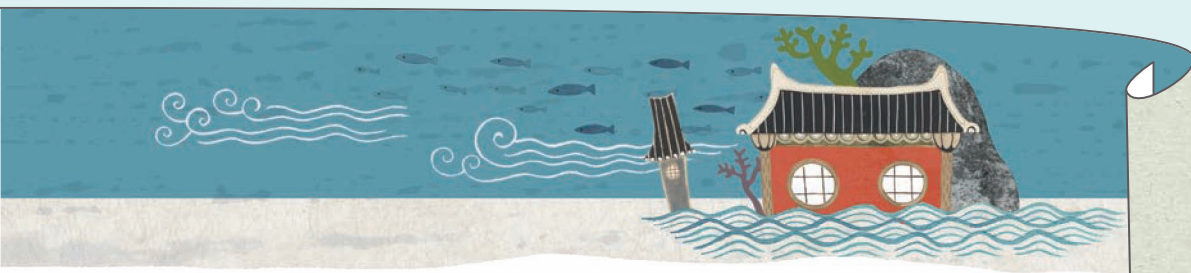
용왕이 있는 용궁이 무대이다.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실대는 화려한 궁전이다.
가운데 용왕의 의자가 놓여 있다.
막이 오르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이 의자에 앉아 있다.
양옆으로 신하들이 늘어서 있다.
신하들은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10

이 연극의 무대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연극 무대나 배경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봐야겠어.

용왕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고 신하들은 관객들이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시옷자로 벌려 서야겠구나.





용왕 (야단치며)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 보았지만, 아직도 아프
질 않느냐!

고등어 황궁하오이다, 마마.

용왕 그놈의 황궁 소리도 듣기 싫다.

5 문어 (머리를 조아리며) •황궁무지로소이다, 마마.

용왕 듣기 싫어! 황궁이고 무지고 그런 소리 말고 내 병이 깔끔히 나을 •묘수
를 말하란 말이다.

꿀뚜기 폐하!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은 줄 아뢰오.

용왕 어패류가 무엇을 말하는고? 신약이 나왔단 말이나?

10 문어 어패류란 물고기나 조개 종류를 말하는 것인 줄 아뢰오.

용왕 물고기…… 너희를 먹으라고?

용왕 놀란다.

용왕 구역질을 한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 꿀뚜기를 두드려 팬다.

15 뱀장어 •어물전 망신은 꿀뚜기가 시킨다더니, 아예 용궁 망신까지 시키는구
나. 누굴 먹어?

꿀뚜기 (분해서) 폐하!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
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뱀장어 (당황해서) 폐하! 죄송스러우나 지난 여섯 달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20 약 될 것이 없는 줄 아뢰오. 차라리 제 사촌 전기뱀장어가 어떨는지요.

전기뱀장어 이런 의리 없는 사촌을 봤나. 폐하! 제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물
속에서 드시면 전기가 올라 입이 뚫어진다고 하옵니다. 저보다는 도루
묵이 어떨는지요.

신하들이 대사를
말할 때는 관객 쪽으
로 돌아서서 말해야
얼굴이 잘 보이겠어.

물고기 가면을 만
들 때는 인터넷에서
사진 자료를 찾아 참
고해야겠어. 등장인
물의 표정을 살리려
면, 가면은 얼굴보다
는 머리에 쓰는 방식
이 좋겠어.

• 황궁무지(惶恐無地): 위
엄이나 지위 등에 놀리어
두려워서 몸 둘 데가 없음.
• 묘수(妙手): 묘한 기술
이나 수.
• 어물전(魚物塵): 생선,
김, 미역 등의 어물을 전
문적으로 파는 가게.
• 명약(名藥): 효험이 좋
아 이름난 약.



여기서 도루묵은
당황한 목소리로 바
르게 말해야겠군.

신하들을 대하는 용
왕의 태도는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도루묵 (펄쩍 뛰며) 폐하! 오죽하면 제 이름이 도루묵이겠습니까? 옛날 어느 임금이 피란 가다 우리 할아버지 묵고기를 잡수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주루룩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묵고기들은 이름이 금어로 고쳐졌다고 하옵니다. 금어.

용왕 금붕어가 아니고? (도루묵 끄덕끄덕) 옳지, 그래. 네놈을 먹어야겠다. 5

도루묵 그런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우리 아버지 묵고기를 잡수시다가 뽕뽕 토하며 “아, 이런 맛대가리를 봤나. 이놈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등어가 어떨는지요.

고등어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먹어 보나 마나입니다.

용왕 왜? 10

고등어 저는 등 푸른 생선이라 머리를 좋아지게 할 뿐이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비려요. 냄새 좀 맡아 보세요.

고등어, 용왕의 앞으로 다가가 등을 내민다.

용왕, 냄새를 맡아 보다가 얼굴을 찡그린다.

용왕, 나머지 신하를 살살이 훑어본다. 15

문어와 자라는 별벌 떨고 있다.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문어가 나선다.

문어 폐하!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 약효가 없는 줄로 아뢰오.

용왕 머리칼은 다 없어. 너만 없는 줄 알아?

문어 (당황하며) 그게 아니고 비닐……. 20

용왕 비닐?

문어 비닐이 아니고 비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붙은 빨판은 배 속으로 들어가 먹은 자의 피를 빨아 버린답니다.

용왕 정말?

문어 마마! 저는 아주 질긴 고기인 줄로 아뢰오. 25

●약효(藥效): 약의 효험.



용왕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

자라 (말을 더듬으며) 저는 자라가 아니라 솔뚜껑인 줄 아뢰오.

용왕 자라…… 자라…… 자라로 하는 약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신하들 용봉탕인 줄 아뢰오.

5 자라 (기가 막혀서) 아이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폐하! 바다의 대왕, 용왕께서는 산속 짐승의 간을 먹어야 하는 줄 아뢰오.

용왕 산속 짐승?

자라 새벽이슬만 먹고 숲에서 자라는 눈꽃 같은 짐승을요.

용왕 그래, 그게 대체 누구냐?

10 자라 그게 말이죠…… 도끼…….

용왕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자라 깡충깡충이.

용왕 아, 깡충깡충 뛰는 청설모를 말하는구나.

자라 귀가 뽀족하게 길고 엉금엉금 기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는다고 들었습니

15 다.

용왕 아, 알았다. 토끼!

자라 그렇습니다.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하옵니다.

용왕 (벌떡 일어나) 여봐라! 얼른 자라를 땅으로 보내 토끼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20 신하들 예이!

자라 저 보고 가라고요?

용왕 내가 아주 급하다! 냉큼 다녀오너라!

신하들 냉큼 다녀오랍신다!

〈별주부전〉 판소리에서 물으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을 튼다.

25 그 노랫소리에 맞춰 자라는 바닷물을 헤치고 육지로 나온다.

자라가 땅에 도착해서 토끼를 찾는 시늉을 하면 연극은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줄임표(……)가 있는 대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별주부전〉 판소리에서 물으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 대신 다른 배경 음악을 넣는다면 어떤 음악을 넣을 수 있을까?

● 청설모: 다람쥐와 동물의 하나로 청서(靑鼠)라고도 함. 몸빛은 잿빛 갈색이며 네 다리와 귀의 긴 털은 검은색임.





제2장

(토끼가 사는 산속)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
토끼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명랑한 콧노래도 부른다.

5

자라 말 좀 묻겠소.

토끼 뻥하다 뻥해.

자라 뭐가 뻥하단 말이요?

토끼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녜요?

자라 용하다, 용해.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총명하다. 예, 맞소이다.

10

토끼 나하고 달리기하자고 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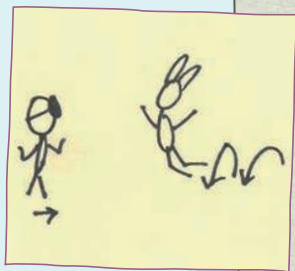
자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머나먼 용궁 속 구경을 가자고 왔소이다.

토끼 용궁? 저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에 절구질하러 간 적은 있어도 용궁 소리는 처음 듣네요.

자라 용궁이란…… (줄줄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처럼) 바닷속의 구중궁궐, 아름다운 선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 손짓하고,

15

제1장과 제2장의
배경은 어떻게 바꾸
면 좋을까?



• 구중궁궐(九重宮闕):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에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사시사철 입을 옷이 궁 안으로 넘쳐 나네. 어여쁜 인어 공주 토끼 같은
멋진 남자 찾아오길 기다리며 가야금 연주한다네.

토끼 정말, 환상적이네요.

자라 자, 토끼님. 나하고 용궁 구경 갑시다.

5 토끼 난 털에 물 묻히는 건 싫은데…….

자라 그런 게 무슨 대수요.

자라는 다가가 토끼 걸옷을 뒤집어서 입혀 준다.

토끼는 털을 안에 입고 가죽이 밖으로 나온다.

토끼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몸을 꼬며) 난 수영도 못 해.

10 자라 (등을 내밀며) 수영을 왜 해? 자라 등 유람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나를
잡아요.

토끼, 자라의 등을 잡는다.

자라, 기어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물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몸동작으

15 로 연기한다.

판소리 음악이 다시 이어진다.

몸동작은 되도록 재미있게 만든다.

어느덧 두 인물이 용궁에 들어서면 3장으
로 넘어간다.



20

제3장

(다시 용궁)

용왕이 신이 나서 걸어 나온다.

그러나 금방 몸이 아파서 쓰러지며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쉰다.

용왕 그래, 토끼를 잡아 왔다고? 어서 들라 해라.

25 문어 자라 대신! 토끼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대화로 짐작할 수
있는 토끼와 자라의
성격은 어떠한가?

토끼의 의상은 어
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용왕의 행동으로 짐
작할 수 있는 용왕의
상태는 어떠한가?

● 대수: (부정문이나 의문
문에 쓰여) 대단한 것.

토끼, 용궁으로 들어온다.
토끼, 온갖 대신들이 모두 물고기들이라 깜짝 놀란다.

토끼 (뒤따라오는 자라한테 화를 낸다.) 아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횃집에 온 거 아냐?

자라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오? 5

용왕 허, 발칙하도다. 짐의 궁전을 모독하다니?

토끼 (용왕을 본다.) 어어…… 저 생선은 처음 보는데……. 근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회로는 못 먹고 매운탕으로 먹겠다.

용왕 (부르르 떨며 화를 낸다.) 어서 저 고얀 놈 배를 갈라라.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 10

신하들이 토끼를 향해 달려든다.
토끼, 피한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토끼를 연기할 때 말투와 행동 면에서 강조할 것은 무엇일까?

토끼 잠깐!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정중하게)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라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께 명약으로 바치려고 당신을 데려온 것이오.

토끼 내 간을 약으로 바치려고요? 15

신하들 그렇다.

문어, 찹싸게 달려들어 다리로 토끼를 감싸 쥔다.
전기뱀장어는 토끼 옆을 스친다.
토끼는 전기가 올라 소스라친다.

토끼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아하하, 안타깝다. 오호통재라. 토끼 간이 산속 짐승한테만 명약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선들한테도 쓸모가 있더라 말이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을 대여섯 개씩 물려받았구나. 좋다. 주지, 쥐. 간을 쥐서 생명을 살린다면 아까울 것이 없지. 20

고등어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빠른 총명한 토끼로고…….

토끼 (고등어한테) 얘, 너 배를 짹 갈라서 소금 짹 짹 뿌려서 고등어자반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까불고 있어. 용왕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 25

- 발칙하다: 하는 짓이나 말이 매우 버릇없고 막되어 괴씸하다.
- 모독(冒瀆)하다: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다.
- 오호통재(嗚呼痛哉): '아, 비통하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
- 고등어자반: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토막 쳐서 굽거나 찌 만든 반찬.

을 드려야겠나이다.

용왕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 배를 쪽 갈라 보자.

토끼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쥬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배 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 차곡차곡 재어 놓고 다니다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용왕 그거 큰일이다.

뱀장어 저놈 말을 믿지 마세요, 폐하!

도루묵 먼저 저놈 배를 갈라 보고, 간이 없으면 다시 토끼를 잡아 오면 어떨는지요.

토끼 (엄살을 띠다.) 아이고, 나 죽네. 그 아까운 간을, 그 용하다는 명약을 심심산골에 숨겨 두고 아까운 목숨만 사라지네.

자라 폐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용왕 그래라, 그래. 간도 없는 놈을 죽여 무엇하겠느냐. 털가죽도 뒤집어쓰는 걸 보니, 간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로다. 얼른 서둘러 다녀오너라.

자라 다녀오겠습니다, 폐하!

뱀장어 (칼을 휘두르며 쫓아온다.) 속지 마십시오, 폐하! 이놈 간 내놔! 간 내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용왕과 신하들을 연기할 때 말투와 행동 면에서 강조할 것은 무엇일까?



● 심심산(深深山)골: 깊고 깊은 산골.

토끼, 도망치며 얼른 자라의 등에 탄다.
토끼, 자라의 등을 발로 차며 '이라 낄낄' 한다.
둘은 헤엄쳐 간다.
둘의 뒤로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쳐 따라온다.
재미있는 빠른 음악이 울린다.

5

토끼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 해지겠다.
자라 뭐라고? 간이 떨어져?
토끼 아냐, 어서 가. 똥 떨어진다는 소리다.
자라 앗! (걱정하며) 내 등에 싸지 마!
토끼 이놈아, 토끼 똥은 똥글똥글 콩자반처럼 예쁘기만 하다.

10

육지로 올라오는 장면
을 연출할 때 필요
한 소품은 무엇일까?

둘은 헤엄쳐 간다.
조명은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출렁인다.
둘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면 연극은 마무리로 넘어간다.

마무리

15

자라는 땅에 엎드려 헉헉 숨을 쉰다.
토끼는 강충강충 뛰어 언덕에 오른다.
자라는 땅에서 걷느라 천천히 걷는다.

자라 (소리친다.) 같이 가!
토끼 (소리 지른다.) 왜 같이 가?
자라 간 하나만 쥐야지!
토끼 너 줄 간은 없다.
자라 뭐라고?

20

토끼 하하하! 이 토끼님을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이번엔 네 차례야. 네가 속은 거야. 세
상에 간을 꺼내 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냐? 이 어리석은 자라야!
자라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25

토끼와 자라는 대
사를 말하기 전에 거
리를 좀 두고 서 있어
야겠군.



토끼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 보약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잡혀
자라탕이나 되어라.

자라 아이고, 망했다. 어떻게 용궁으로 돌아가나……. 난 몰라. 모른다고…….

자라는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걱정을 한다.

5 토끼는 약을 올리며 강충강충 뛰어간다.

자라 노래와 토끼 노래를 하며 끝을 낸다.



자라 노래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10 강충강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토끼 노래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15 토실토실 내 간을

지키고 살 테야.

창의 질문

이 글을 읽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예 마지막에 토끼와 자라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이 연극에 어울릴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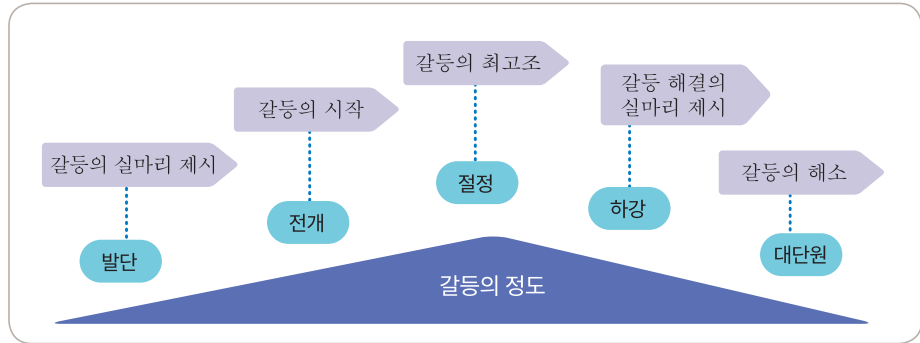


토끼와 자라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출연진이 모두 나와 음악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연극을 마무리하는 효과가 날 것 같아.

이끌기

갈등이 어느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지, 어느 부분에서 해결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1 이 글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갈등의 진행 과정을 파악해 보자.



발단	용왕은 병이 낫지 않자 신하들을 다그친다. 자라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하자 용왕은 토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전개	육지로 나온 자라는 토끼를 만나 용궁 구경을 가자고 설득하여 토끼를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
절정	
하강	
대단원	

2 이 글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성격과 태도, 갈등 관계를 알아보자.

이끌기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잘 살
펴보고 성격과 태도를 추측해
보세요.

(1)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과 태도를 파악해 보자.

인물	말과 행동	성격과 태도
용왕	• (야단치며)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 보았지만, 아직도 아프질 않느냐! • (부르르 떨며 화를 낸다.) 어서 저 고안 놈 배를 갈라라.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	
자라	•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 앗! (걱정하며) 내 등에 싸지 마! •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토끼	•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아하하, 안타깝다. • (엄살을 띤다.) 아이고, 나 죽네. 그 아까운 간을, 그 용하다는 명약을 심심산골에 숨겨 두고 아까운 목숨만 사라지네.	

(2) 등장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려 보고, 갈등 관계를 파악해 보자.





3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 속담 사전:

-
-

4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해 보자.

이끌기

친구들과 함께 대본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과 친구에게 어울릴 만한 역할을 정해 보세요.

이끌기

모둠의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개의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연출담당자가 비중이 작은 배역을 함께 맡을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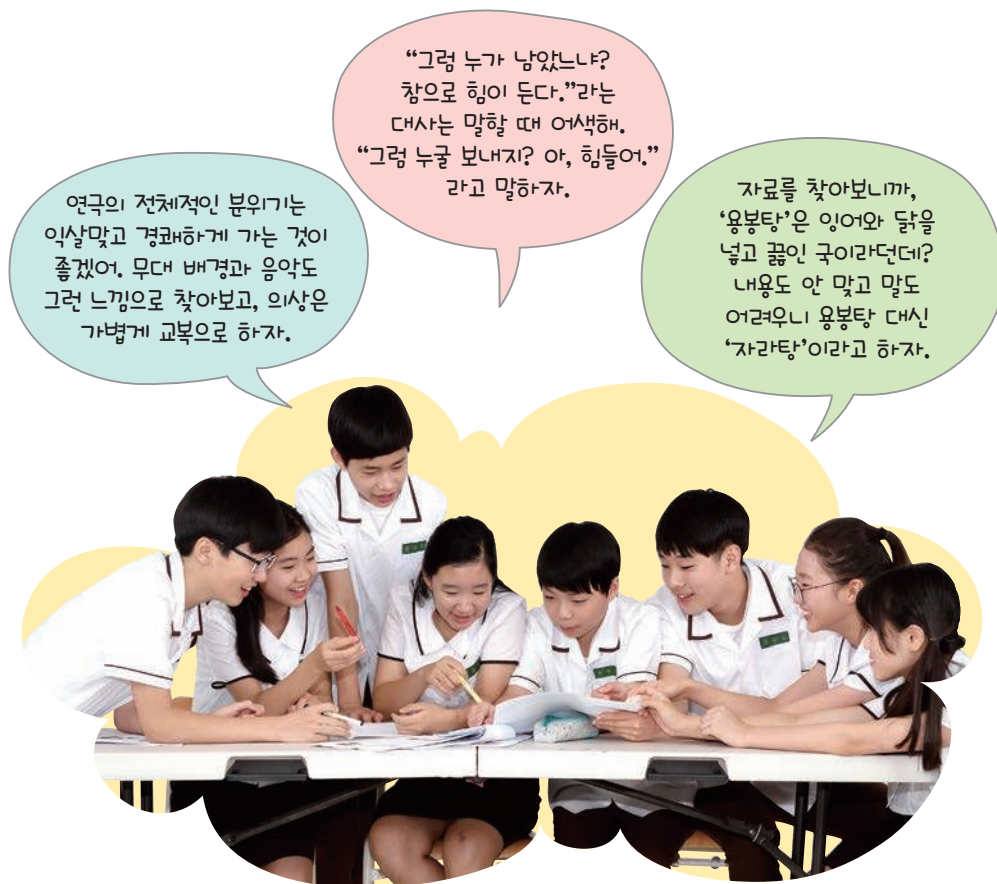
역할	할 일	이름
연출자	인물의 움직임과 위치를 꼼꼼하게 정하고, 다른 담당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관객들이 연극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김채은
배우	용왕	유지예
	자라	최규빈
	토끼	김현준
	전기뱀장어	이연재
	도루묵 고등어	김용욱

⋮

무대와 소품 담당자	무대 배경과 조명을 준비하고 필요한 소도구를 갖춘다.	조연우
의상과 분장 담당자	연극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준비하고, 배역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장을 해 준다.	김채은
음악과 음향 담당자	연극의 분위기, 각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과 음향을 찾아 틀어 준다.	이연재

(2)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고려하여 연극을 준비해 보자.

① 함께 대본을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대본을 고쳐 본다.



② 연극의 장면 단위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한다.

이끌기

몸풀기 활동은 긴장된 몸을 가볍게 풀어 주고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어요. 친구의 동작을 따라 하는 거울 놀이나 속담을 몸으로 표현하는 놀이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몸풀기 놀이로, 함께 연극을 할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어요.



- 배우는 말은 배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대사와 표정, 몸짓을 연습해요.

이끌기

대사는 물론 표정과 몸짓을 연습해야 태도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이 맡은 배역의 대사와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옳지, 그래.
네놈을 먹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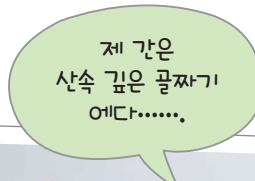
어물전 망신은
꿀떡기가
시킨다더니.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으로.....



제 간은
산속 깊은 골짜기
에다.....



이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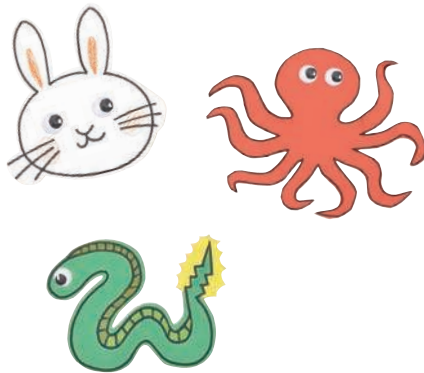
자신이 연출진이라면 어떻게 무대와 의상, 음악을 구성할지 생각해 보세요.

- 연출진은 연극의 분위기와 극적 효과를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요.

1
단원



- 연극 공연에 앞서 역할에 따라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5 연극을 공연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생각해 보자.

이끌기

무대에서 실제로 연극을 공연하는 동안 배우와 연출진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또 관객들은 어떤 태도로 공연을 보아야 할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 해결과 적용

:: 작품을 읽고 연극으로 표현하기



이끌기

작품은 갈등 관계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선정해야 희곡으로 각색하기가 좋아요. 소설이나 다른 갈래의 작품을 희곡으로 고쳐 쓸 수도 있고, 창작극을 새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1 모둠원과 함께 연극으로 공연하고 싶은 작품을 선정해서 읽어 보자.

(1) 자신이 모둠원과 함께 연극으로 공연하고 싶은 작품을 소개해 보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2)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작품과 그 작품을 선정한 까닭을 말해 보자.

제목, 작가	선정한 까닭

(3)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작품을 읽고 독서 일지를 써 보자.

읽은 날짜	읽은 부분
월 일	쪽 ~ 쪽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점	
책을 읽으면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	

* 활동지 양식은 교과서 210쪽에 있어요.



(4) 작품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과 자신이 참고한 자료들을 모둠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자.

2 선정한 작품에서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찾고, 갈등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 보자.

(1)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 갈등 상황을 정리해 보자.

갈등 상황 ①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 상황인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인물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인물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갈등에 담긴 의미를 모둠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끌기

각색할 때는 원작의 전체 줄거리를 다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본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갈등 관계 등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아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줄거리 등을 원작과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3 모둠에서 공연할 대본의 줄거리, 등장인물, 갈등 관계를 정리해 보자.

(1) 모둠에서 공연할 대본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

(2) 대본에 등장할 주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해 보자.

예

- 이름: 문기
- 나이, 성별: 14세, 남자
- 성격: 순진하고 나약함.
- 상황: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고 삼촌과 숙모에게 거짓말을 했으나 나중에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함.

- 이름:
- 나이, 성별:
- 성격:
- 상황:

- 이름:
- 나이, 성별:
- 성격:
- 상황:

- 이름:
- 나이, 성별:
- 성격:
- 상황:

이끌기

연극의 내용은 주요 인물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지루해지기 쉽답니다.

(3) 등장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려 보고 갈등 관계를 정리해 보자.

등장인물의 갈등 관계

* 대립적인 관계는 ↔로, 그렇지 않은 관계는 —로 표시해 보세요.

4 보기는 고전 소설과 그것을 각색한 희곡이다. 이를 참고하여 대본을 완성해 보자.

보기

가 토끼가 산속으로 뛰어들어 가니 자라는 토끼를 놓치고 기가 막혀 울음을 운다.
“애고, 애고, 애고, 애고. 어디 가서 토끼를 잡을꼬?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충성이 부족하든가, 대왕의 명이 짧든가? 수궁까
지 갔던 토끼 너를 산속에 다시 놓아주니, 이제 어디 가서 다시 토끼를 잡
으리오. 우리 대왕 죽고 나면 수국의 모든 일을 누구와 의논할 수 있단 말
인가? 우리나라 굳은 사직 속절없이 되었구나. 애고, 애고, 설운지고.”
별주부는 수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로 소상강으로 돌아가서 대숲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작자 미상, <토끼전>

나 토끼는 산속으로 뛰어들어 간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기가 막혀 운다.

자라 아이고, 이제 어디 가서 토끼를 잡지? 내 충성이 부족했던 걸까? 용왕
님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용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자라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자라를 부른다. 돌아보니 두
건을 쓴 노인이 서 있다.

신선 자라야, 잠시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자라 예? 노인은 누구십니까?

신선 (소매 안에서 약 한 봉지를 내주며) 네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약이니라. 빨리 가서 용왕의 병을 낫게 하여라.

자라 (기뻐하며 약을 받아 품에 꼭 안는다.) 정말이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
리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신선 하하하! 그렇다.

자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 수국(水國): 바다의 세계.
- 사직(社稷):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 속절없다: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 소상강(瀟湘江): 샹오상 강. 중국 후난 성(湖南省) 남쪽에 있는 경치가 뛰어난 강 이름.

이끌기

희곡은 해설과 대사, 지시문으로 이루어져요. 희곡의 첫머리에서 무대와 배경,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해설이라고 해요. 배우가 하는 말은 대사라고 하고, 무대나 조명, 음향, 인물의 표정과 행동, 어조 등을 설명하는 글은 지시문이라고 해요.

제목: _____

등장인물: _____

장소: _____

이끌기

공책 9~10장 분량의 대본이
면 약 15~20분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어요.

1
단원



 이끌기

대본을 출력하거나 복사해서 연출 공책을 만들 수 있어요. 대본의 여백과 뒷면을 활용하여 연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적어 보세요.

5 대본을 인쇄하여 연출 공책을 만들고, 그것을 참고하여 연극 연습을 해 보자.

(1)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해 보자.

역할		할 일	이름
연출자			
배우			
무대와 소품 담당자			
의상과 분장 담당자			
음악과 음향 담당자			

(2)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고려하여 연극을 준비해 보자.

① 함께 대본을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대본을 고쳐 보자.

고친 부분	고친 까닭
• • •	• • •

이끌기

장면별로 연습한 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연습해 봅니다. 한번에 이어서 연습을 하면 장면별 연습을 할 때는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연습을 해 보아요.

② 연극의 장면 단위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해 보자.

- 다양한 몸풀기 놀이로 함께 연극을 할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어요.
- 배우는 맡은 배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대사와 표정, 몸짓을 연습해요.
- 연출진은 연극의 분위기와 극적 효과를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요.



이끌기

연출 공책에 적은 내용과 그 동안 연습하면서 파악했던 주 의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요.

③ 연극 공연에 앞서 역할에 따라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연출자	배우	
무대와 소품	의상과 분장	음악과 음향

이끌기

전체 연습은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을 말하는데, 예행연습이라고도 해요. 전체 연습에서는 미술, 소품, 음악, 음향 등의 효과를 확인하므로 연출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6 공연 준비가 다 되었다면 연출자의 지휘에 따라 전체 연습을 해 보자.



🔍 **이끌기**

희곡 쓰기와 연극 공연하기
의 두 가지 활동을 모둠별로 점
검해 보도록 해요. 점검 후에는
연극을 마친 느낌이나, 부족했
던 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
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7 모둠별로 연극을 공연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평가 영역	평가 기준	평가
희곡 쓰기	•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선정하였는가?	😊 😐 😞
	• 희곡의 요소가 잘 표현되었는가?	😊 😐 😞
	• 대사에서 인물의 성격과 갈등, 주제가 잘 드러났는가?	😊 😐 😞
연극 공연하기	• 갈등의 원인과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났는가?	😊 😐 😞
	• 무대, 소품, 의상, 분장, 음악 등의 사용이 적절하고 창의적인가?	😊 😐 😞
	• 배역 선정이 잘되었는가?	😊 😐 😞
	• 대사 전달과 연기가 자연스러웠는가?	😊 😐 😞



1 다음을 읽고 맞는 말은 ○에, 틀린 말은 ×에 표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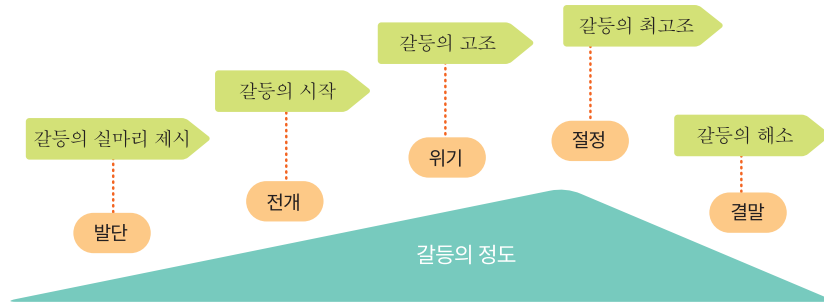
- (1) 〈하늘은 맑건만〉에서 문기는 선생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갈등을 해결한다. (○, ×)
- (2) 희곡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 ×)
- (3) 〈토끼와 자라〉에서 토끼와 자라는 서로를 속임으로써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다. (○, ×)
- (4)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글을 읽으면 관련된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다. (○, ×)

2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문학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대립과 충돌을 _____(이)라고 한다.
- (2)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인물과 다른 _____, 인물과 사회, 인물과 _____, 인물과 _____의 대립 등에서 생길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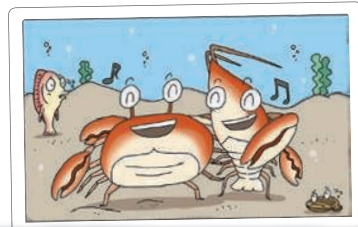
나도 선생님

- 다음 그림을 보며 갈등의 정도에 따라 소설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짝과 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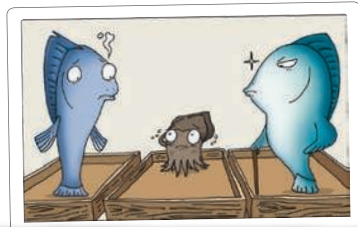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갈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였나요?	☆☆☆☆☆	☆☆☆☆☆
• 갈등의 정도에 따른 소설의 구성 단계를 잘 설명하였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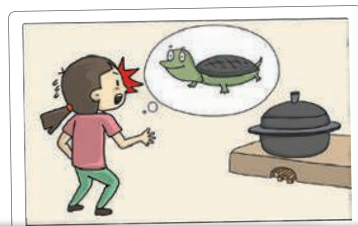
1 바닷속 생물을 소재로 한 속담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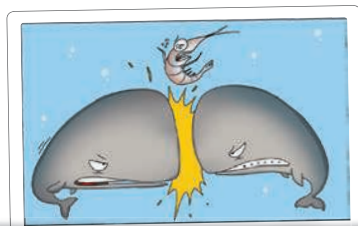
(1) 가재는 게 편이다.



(2)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3)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4)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보기

- ㉠ 지지리 못한 사람일수록 같이 있는 동료로 망신시킨다.
- ㉡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낸다.
- ㉢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감싸 주기도 쉽다.
- ㉣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

2 '손'과 어울려 뜻을 이루는 말과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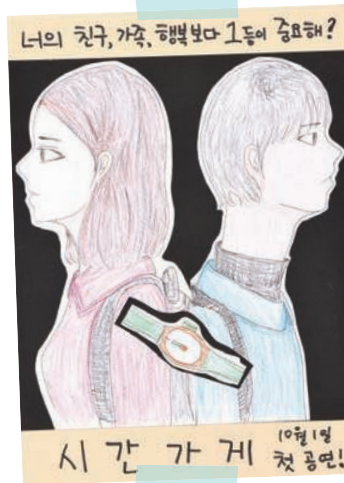
- | | |
|--------------|---------------------------------|
| (1) 손이 크다. • | ㉠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 |
| (2) 손을 놓다. • | ㉡ 씹씹이가 후하고 크다. |
| (3) 손이 맞다. • | ㉢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
| (4) 손에 익다. • | ㉣ 함께 일할 때 생각, 방법 따위가 서로 잘 어울리다. |



연극 전단 만들기

전단이란?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낱장의 종이 인쇄물을 말하며, 알림 쪽지, 광고지 또는 리플릿(leaflet)이라고도 부른다.

✎ 학교 행사에서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듬의 연극을 홍보할 전단을 만들어 보자.



연극 전단 창작 과정

- 1 연극이나 영화의 전단을 준비하여 내용을 살펴요.
- 2 우리 모듬의 연극 전단에 넣을 내용을 정리해요.
- 3 우리 모듬의 연극을 홍보할 전단을 만들어요.
- 4 모듬원과 함께 전단을 배포해요.

1 다음 예를 참고하여 연극이나 영화의 전단을 살펴보자.



예	내용	설명
	제목	• ‘뮤지컬 홍길동’, 붓으로 쓴 듯한 글씨체로 고전의 느낌을 전달한다.
	인물	• 주인공의 모습을 가운데 배치하여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강조한다. • 얼굴이 가려진 인물이 하늘을 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어 인물의 신비로움과 뛰어난 능력을 나타낸다.
	배경	• 검은색 배경과 붉은색 매화로 어두운 현실에 맞선다는 주제를 드러낸다.
	홍보 문구	•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 구절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공연 안내	• 공연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린다.

내용	설명

도움말 전단마다 들어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2 우리 모두의 연극 전단에 넣을 내용을 정리해 보자.

내용	설명

3 우리 모듬의 연극을 홍보할 전단을 만들어 보자.

도움말 사진이나 잡지 등을 활용하여 전단을 꾸미고, 연극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보세요.



4 모듬원과 함께 완성된 전단을 배포해 보자.

전단을 배포할 장소	이 장소를 선택한 까닭

5 완성된 전단을 돌려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평가 기준	평가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5모듬
• 연극 내용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 연극의 주제와 성격이 잘 드러나는가?					
• 전단의 구성이 창의적인가?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독서와 연극

-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갈등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해결 방법을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 희곡을 읽고 연극으로 공연할 때, 인물의 성격을 말과 행동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나의 점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적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 보자.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른 핵심 역량을 확인해 보자.

☐☐☐☐☐☐



연극이 된 우리 고전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며 사랑을 받아 온 작품을 말해요. 고전에 담긴 이야기는 연극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공연됩니다.



평양 공주와 온달 바보

〈평양 공주와 온달 바보〉는 평강 공주가 바보 온달을 훌륭한 장군이 되게 한다는 고구려 시대의 〈온달 이야기〉를 빗자루, 붓, 옷걸이 같은 친숙한 일상의 물건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꾸민 연극이에요.



춘향이 온다

〈춘향이 온다〉는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과 춤이 잘 어우러지도록 꾸민 연극이에요. 〈춘향가〉의 두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재치와 익살이 더해져 유쾌한 마당극이 되었어요.





심청

'토슈즈를 신은 한국의 고전'이라는 주제로 만든 발레 무용극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의 희생적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무용수들이 전통 의상을 변형하여 만든 발레복을 입고 아름답게 춤을 추는 무용극입니다.



공무도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공무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해요. 연극 <공무도하>는 안타깝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 주는 음악극이에요.



고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주변에서 더 찾아보고 직접 감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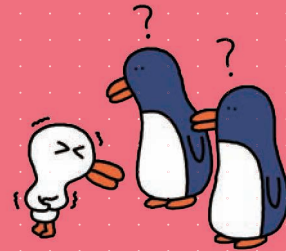
2



눈은 어디 있나? 요기!
코는 어디 있나? 요기!



간추리고 쓰고



읽기

쓰기



(1) 요약하며 읽기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대단원 학습 목표

-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읽으며 내용을 적절하게 간추리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찾아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면 읽는 이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글을 읽으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글을 쓸 때 주제를 잘 드러내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도 기르고,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어요.

1

요약하며 읽기

☀ 학습 목표 •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요약이 필요한 상황 떠올리기



이해와 탐구

- 요약의 방법 이해하기
- 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요약하기



문제 해결과 적용

- 성격이 다른 다양한 글을 요약하며 읽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글을 읽고 주제를 말할 수 있어. ☐
- ②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할 수 있어. ☐
- ③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 ☐

5~6학년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온 사랑이, 영화 내용을 정음이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영화를 볼 때의 느낌과 감동을 그대로 담아 줄거리를 전하고 싶은데…….



- ① 사랑이가 정음이에게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② 생활 속에서 요약이 필요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읽기 목적,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 보세요.

이끌기

요약할 때는 제일 먼저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해요.

중심 문장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단이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표시한 후, 표시한 것과 관련된 주요 단어와 내용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그런 다음 표시한 부분과 밑줄 친 내용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1문단: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2문단: 남극은 얼음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

이 글 전체에서 설명하는 대상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남극은 면적이 1,360만 km^2 로, 한반도의 60배에 이르는 거대한 대륙이며, 지구 상의 7대 대륙 중 다섯 번째로 크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눈이 단단하게 굳어져 생긴 두께 2km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 남극에서 오래된 운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오래전 지구 겉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10



반면에 북극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한다. 북극해는 면적이 1,400만 km²로, 지중해의 6배이며,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 북극은 이 북극해 주변의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물론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 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역사상 최저 기온은 영하 89℃였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남극의 추위를 견뎌 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3문단: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이다.

4문단:

이끌기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어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1문단의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3문단의 ‘반면에’ 등과 같이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알려 주는 부분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4문단의 ‘이처럼~ 미친다.’를 보면 앞에서는 ‘지역적 특징’을, 뒤에서는 ‘기후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개됨을 알 수 있구나.



5문단: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얼음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0~40℃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Eskimo)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5

6문단:

한편, 펭귄은 남극에서 볼 수 있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산다. 왜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까? 펭귄은 여러 종이 있지만 대부분 남극 주변에서 산다. 주로 해안가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펭귄들은 작은 돌 조각들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든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돌 조각은 햇빛을 흡수하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펭귄이 주로 남극에 사는 이유는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 일부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지금의 펭귄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0

● 해류(海流):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반면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것은 북극이 북반구의 육지에서 가까운
 5 곳이기 때문이다.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넘어가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도 유빙을 타고 이동하
 는 북극곰이 있다고 하니 북극해 주변의 얼음덩어리는 북극곰의 이동 수단
 10 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곰이 얼음덩어리를 타고 남극 대륙까지 갈 수
 는 없었지만, 남극 주변에 살던 펭귄 같은 조류는 육지를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극 대륙으로 이동하기가 더 쉬웠다. 그래서 북극곰은
 있지만 남극 곰은 없고, 남극 펭귄은 있지만 북극 펭귄은 없는 것이다.

보통 100m 두께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리므로 오늘날 남
 10 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리고 이처럼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고현덕 외, 《살아 있는 과학 교과서 1》

창의 질문

이 글을 읽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
 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
 었을까?

-
-

7문단:

8문단:

• 유빙(流氷): 물 위에 떠내려가
 는 얼음덩이.

이끌기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이 추운 극지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단별 중심 내용을 구조에 따라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 이 글의 전체 구조에 따라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문을 완성해 보자.

처음

❶ 문단: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중간

남극		북극
❷ 문단: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지역적 특징	❸ 문단: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이다.
❹ 문단: _____ _____ _____	()	❺ 문단: _____ _____ _____
❻ 문단: _____ _____ _____	생태적 특징	❷ 문단: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까닭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끝

❸ 문단: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요약문]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지역적 특징을 보면,

이끌기

주장이나 정보의 확인, 내용의 적절성 평가 등 읽는 이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요약하면 돼요.

2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이 글을 적절하게 요약해 보자.

(1) 수정이는 극지에 사는 동물을 살펴보기 위해 요약하려고 한다.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어느 문단을 중심으로 요약할지 선택해 보자.
- 선택한 문단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자.

(2) 규빈이는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누나, 남극이 어떤 곳이야?”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려 한다.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어느 문단을 중심으로 요약할지 선택해 보자.
- 선택한 문단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대답해 보자.



(3) (1)의 수정이와 (2)의 규빈이가 요약한 내용이 다르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끌기

이 글의 구조가 어떤지 살펴
본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3 다음은 극지 연구자가 쓴 글이다. 이 글을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와 비교하며 읽고, 요약문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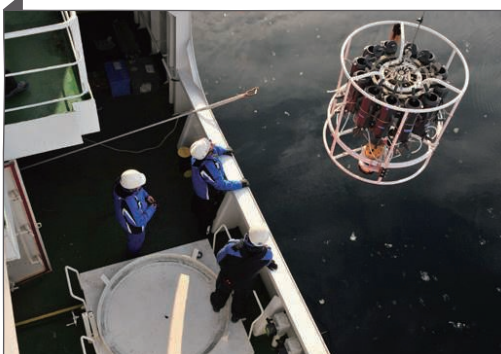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

1820년 남극 대륙이 인간에게 처음 알려진 이후 남극 주변의 바다에서는 고래 잡이와 물개잡이가 이루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남극 대륙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아문센, 스콧과 같은 탐험가들이 남극점을 정복하였고,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군사 기술이 발달하여 본격적으로 남극 탐사가 이루어졌다. 1957~1958년 ‘국제 지구 물리의 해’를 계기로 남극은 미지의 탐사 대상에서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북극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군사적인 이유로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옛 소련의 말기인 1987년에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러시아 북극권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무르만스크 선언의 주요 내용은 북극의 비핵 지대화, 자원 이용을 위한 협력, 과학 조사와 환경 보호의 공동 노력 및 북극 항로 개발이다. 최근 들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북극해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극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극지가 얼음으로 덮인 불모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남극해에서 잡을 수 있는 크릴의 양은 연간 2억 톤 정도로 짐작된다. 이는 현재 세계 총어획량의 배가 넘는 양으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또한, 머지않아 남극의 대륙붕에서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북극권에서는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70%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북극해에서 해상 석유도 생산되고 있다.

- 냉전(冷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뜻함.
- 무르만스크(Murmansk) 선언(宣言): 냉전 시기에 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행을 금지하였던 북동 항로를 개방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선언.
- 비핵 지대화(非核地帶化): 핵무기의 제조, 저장, 실험, 배치, 행사 등을 금지하는 특정 지역으로 만드는 것.
- 불모(不毛):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
- 크릴(krill): 작은 새우와 비슷한 갑각류의 하나로, 남극 주변의 바다에 혼함.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남극과 북극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남극은 지구 상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이다. 산업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도 살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조그마한 오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거의 안 된다. 북극 또한 전 세계 공업 생산의 80%가 북위 30도 위쪽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에 따른 환경 변화를 감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북극 지역이 지구의 기상, 기후, 해류 순환 등 환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 해양 조사 시험감 채취



▲ 남극세종과학기지 대기 빙하 관측동

아직 극지 연구는 자원 개발이나 활용보다는 기초 과학 부문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극지 연구도 다른 기초 과학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다. 극지 연구와 같은 기초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를 중심으로 공익성이 기대되는 극지 연구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 김예동, 《국제신문》



▲ 쇄빙 연구선

이끌기

이 글은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이를 고려하여 요약해 보세요.

(1) 이 글의 내용을 글의 구조에 따라 정리해 보자.

도입	남극과 북극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근거	• •
주장	

(2) 이 글과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
공통점	극지(남극과 북극)를 다루고 있다.	
차이점	----- ----- 은/는 주장을 하고 있다.	----- ----- 을/를 설명하고 있다.

이끌기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해요. 먼저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의 요약문을 써 보자.

**알아두기**

● **요약의 뜻**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을 말함.

● **요약의 방법**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 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읽기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요약함.

글의 구조에 따라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문단의 중심 내용 간추리기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 → 정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읽기 목적에 따라 읽기 목적에 따라 읽는 목적을 고려하며 읽기 →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중심 문단 선택하기 → 선택한 문단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 정리하기 → 정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이끌기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보세요.

• 문둥병(病): ‘나병’을 낮잡아 이르는 말.

다음은 이야기 <오봉산의 불>이다. 잘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여 만화로 그려 보자.

오봉산의 불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서 재미있게 살았어. 깨가 쏟아지게 잘 살다가 그만 덜컥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 버렸대. 같이 살 수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문둥병을 아주 무섭게 여겼거든. 병을 옮긴다고 해서 병든 사람을 산속 깊은 곳에다가 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그것도 중간에 정한 데다가 가져다 두면 병자가 찾아가서 먹고 외롭게 혼자 살곤 했지. 그러니 부인이 남편과 안 떨어지려도 안 돼. 약이란 약은 다 써 봐도 안 돼. 그래서 부인은,

“우리 남편 병 낫게 해 줘소서.”

하고 매일 빌었어. 한없이 빌던 어느 날 스님 하나가 찾아왔어.

“부인 정성이 지극하여 내가 당신 남편 살 도리를 가르쳐 주리다. 다섯 개의 봉우리가 이어진 오봉산(五峰山)에다 불을 켜 놓고 남편을 찾아가시오. 그것도 백 날 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니 부인의 귀가 번쩍 뜨일 것 아니겠는가?

“스님, 스님, 오봉산은 어디 있는가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데 있소이다. 그것은 부인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 가서 오봉산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오봉산이란 곳은 없어. 조선 팔도 다 다녀도 삼



봉산(三峰山)은 있는데 오봉산은 없어. 백 날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그러다가 내일이면 백 날이 되는 날에,

“이렇게 떨어져서 살 바에는 남편 옆에 가서 죽자.”

하고 남편을 찾아갔어.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간 것이지. 가다 보니 백 날째가 되었는데 아직 해가 있어서 바빠 갔지. 그러다가 해 질 녘이 되었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남편 곁으로 가야 하는데, 남편이 있는 암자 근처에 가서 그만 쓰러졌어.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죽어도 같이 죽을 수 있는데, 인제 더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해는 사정없이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그 해를 향해 제발 넘어가지 말라고 손을 내젓고, 해를 잡아당기려고 손가락을 짹 찢어. 해가 넘어갈 때는 서쪽 하늘도 붉고 해도 붉지 않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로 자기 손가락 다섯 개가 오봉산인 거야.

“아! 내 손가락이 오봉산이구나!”

그래서 당장 부싯돌을 찾아 성냥으로 불을 켜서, 손가락 다섯에다가 붙이고 기운을 내서 암자를 찾아갔어. 부인은 오봉산에 불을 붙이려고 항상 부싯돌과 기름을 가지고 다녔지.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암자를 찾아가니까 남편이 목욕하다가 나오는데, 그 순간에 병이 싹 나왔대. 그냥 좋아 죽겠지.

그래서 마을에 다시 내려와서 아들딸 낳고 잘 살았대.

- 작가 미상

• 암자(庵子): ①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② 도를 닦기 위하여 만든 자그마한 집.



 이끌기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고려하면 더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 이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인물	부인, 남편, 스님
배경	옛날, _____
사건	• 어느 부인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 • •



주제:

 이끌기

이야기의 사건은 시간이나 공간 순서로 요약할 수도 있고,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으로 정리하여 요약할 수도 있어요.

(2)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이야기의 요약문을 완성해 보자.

[요약문]

옛날 어느 마을에 살던 한 부인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끌기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만화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정해서 재미있게 그려 보세요.

(3) (2)에서 쓴 요약문을 만화로 그려 보자.



2 생활 속에서 다음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일부이다.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읽고 요약해 보자.

이끌기

교과서를 읽는 목적은 공부할 내용을 배워서 익히려는 것이지요. 교과서는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원명, 학습 목표 등을 제시해 주고, 중요 내용은 글씨체를 달리하거나 도식으로 그려서 눈에 띄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단원의 제목과 학습 목표를 보니 여기서는 _____을/를 알아야겠군요.

진한 글자로 표시한 것을 보니 이 부분에서는 _____이/가 중요한 내용이겠네.

1 경제 활동

학습 목표 경제 활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은 경제 활동의 연속이다

만약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배고픔에서 벗어날 음식을 찾고 비바람을 막아 줄 집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모두 경제 활동이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경제 활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은 크게 생산, 분배, 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이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만들거나,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해 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늘리는 활동도 생산에 포함된다.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생산 요소를 제공받은 대가로 임금이나 이자, 지대 등을 지불하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 **소비**는 분배받은 소득으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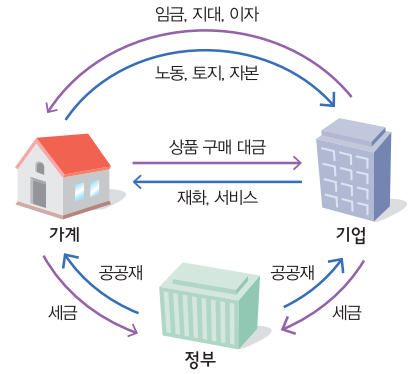
*재화(財貨): 옷, 집 등과 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물건.

*서비스(service): 의사의 진찰이나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과 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행위.

*생산 요소(生産要素): 노동, 자본, 토지 등과 같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

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면
2문단에서는 경제 활동의
의미, 3문단에서는 경제 활
동의 종류, 4문단에서는 —
을/를 설명해
놓은 걸 알 수 있어.

경제 활동에는 가게, 기업, 정부 등이 참
여한다. **가게**는 기업에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으로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고, **기업**은
가게로부터 제공받은 노동과 자본 등을 이
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
체이다.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국방, 치안, 도로, 교육 등의 *공
공재를 생산하는 한편, 기업이 생산한 재
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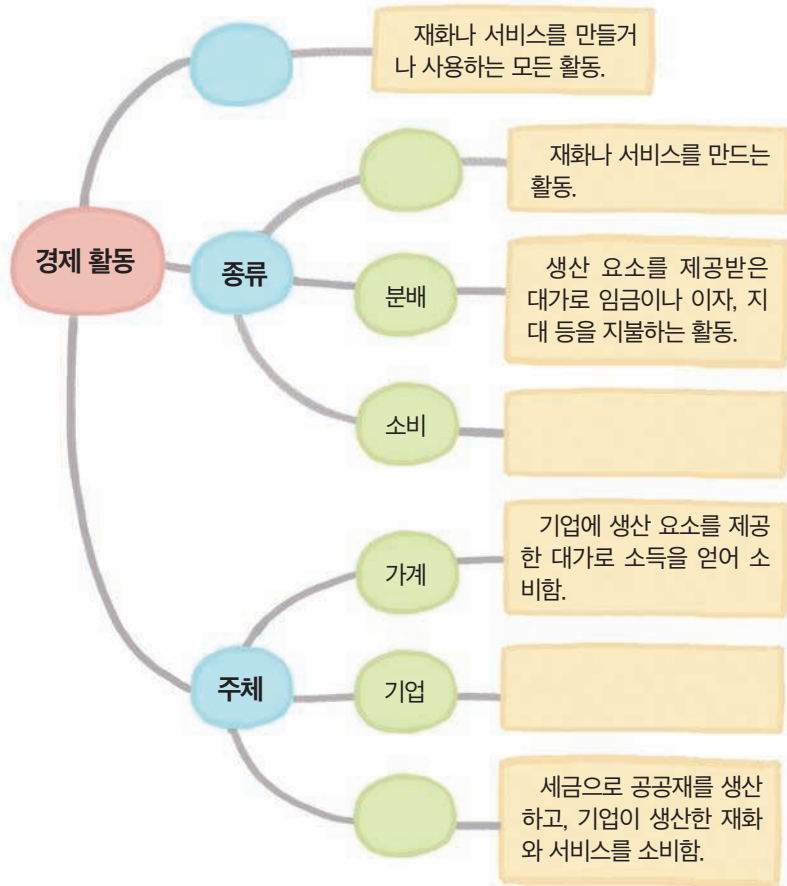
📌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 공공재(公共財): 가로등, 도로, 국방 서비스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 이끌기

교과서를 요약할 때는 문장
으로 이어서 적는 것보다 생각
그물이나 구조도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
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 체계
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
기도 쉬워요.

(1) 이 교과서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생각 그물의 빈칸을 채워 보자.



🔍 이끌기

글을 요약할 때는 요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해요.

(2) 다른 과목 교과서의 일부를 골라 읽고 요약해 보자.

내가 고른 교과서					
<	> 과목	쪽	줄 ~	쪽	줄
• 단원명: • 학습 목표: • 요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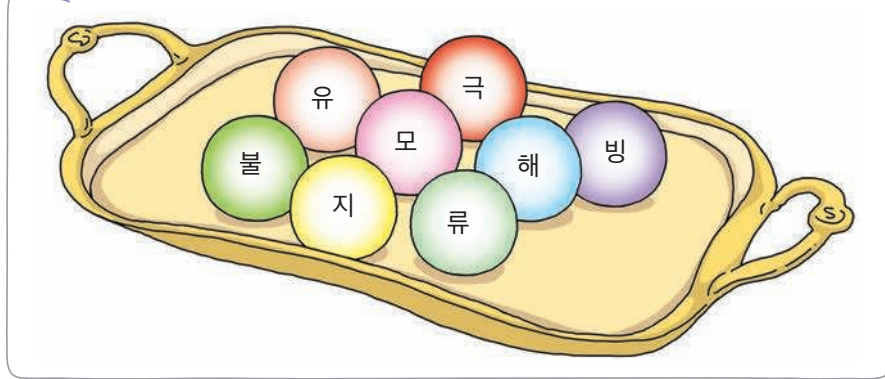
(3) 요약한 내용을 친구들과 돌려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 단원명, 학습 목표 등을 고려하여 중요 내용을 간추렸는가?	😊 😐 😞
• 글의 구조를 바르게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는가?	😊 😐 😞
•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는가?	😊 😐 😞



1 보기에서 글자를 골라 제시된 뜻에 알맞은 단어를 만들어 보자.

보기



물 위에 떠내려
가는 얼음덩이.

(1)

맨 끝에 있는
땅. 극지방.

(2)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3)

땅이 거칠고 메
말라 식물이 나거
나 자라지 아니
함.

(4)

2 보기의 관용 표현을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해 보자.

이끌기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서 원래의 뜻과는 전
혀 다른 새로운 뜻으
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말해요.

보기

빙산의 일각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외부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
지 아니함을 비
유적으로 이르
는 말.



깨가 쏟아지다

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나다.



(1)

(2)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 학습 목표 •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글쓰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생각해 보기



이해와 탐구

-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방법 이해하기



문제 해결과 적용

- 통일성 있는 글 쓰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글을 써 본 적이 있어. ☐
- ②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쓸 수 있어. ☐ 3~4학년
- ③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쓸 수 있어. ☐ 5~6학년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용기는 갑자기 친구들에게 전할 말이 떠올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



- 1 용기의 문자 메시지를 읽은 친구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2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용기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 계획하기

국어 시간에 자신의 관심거리에 관한 글을 쓰게 된 연우는 어떤 글을 쓸지 생각해 보았다.

이끌기

글쓰기의 시작은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을 생각해 보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계획에 따라 통일성을 갖춘 글을 써야 하지요. 글의 통일성이란 글의 세부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뜻해요.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려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지 따져 보아야 해요.



연우가 쓸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말해 보자.

- 주제:
- 목적:
- 예상 독자:



:: 내용 선정하기

주제를 정한 뒤에 연우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며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끌기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찾아 활용하면 내용이 알차고 풍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내용을 선정할 때는 그것이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내용인지 판단해 보아야 해요.

종이 신문의 장점을 다루고 있으니 글에서 활용하면 좋겠지?

가

날마다 정보를 전해 주는 신문

신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 박상하, 《신문을 읽으면 공부가 즐겁다》에서



나

“신문이 수학·과학 성적도 높여”



미국·일본·유럽에서 효과 검증 (중략) 신문을 꾸준히 읽을수록 학교 성적도 좋다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 《조선일보》 2015년 10월 27일 자에서

신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니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겠지?

다

신문 읽기 고수의 신문 읽기 방법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해서 보기, 제목(표제)에 연연하지 않고 선택한 기사 끝까지 읽기…….

- ‘한국언론진흥재단’ 블로그에서

신문을 읽는 방법도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겠어.

● 표제(表題): 신문이나 잡지 기사의 제목.

라

신문 읽는 경영인 000



신문에 나온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교과

서는 바로 신문이었어요.

- ‘와이티엔(YTN)’에서

이 내용은 주제를 강조하면서도 흥미를 끌 수 있을 거야.

마

신문의 인쇄



신문 인쇄의 과정은 활판·제판·인쇄 3단계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전자출판 형태를 띠고 있다.

- ‘두산백과두피디아’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여 종이 신문의 특성을 설명해 볼까?

1 연우가 조사한 자료 중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골라 보자.

2 글의 주제를 뒷받침할 내용을 더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이끌기

조직하기란 선정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나중에 쓸지, 어떤 구조로 내용을 연결할지 정하는 과정이에요. 조직한 내용이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 내용 조직하기

연우는 자신이 선정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뒤에 쓸지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글의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주제 — 종이 신문을 읽자.

처음 — 청소년들이 종이 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

중간

- ① 종이 신문의 특성
 -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 줌.
- ②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 성적이 향상됨.
 -
- ③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
 - 경영인 ○○○의 성공 비결
 - 종이 신문의 독자 수 감소
- ④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
 - 표제를 중심으로 훑어보기
 - 관심 분야부터 먼저 읽기

끝 — 종이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문제 상황을 글의 '처음' 부분에 제시하면 읽는 이가 공감할 것 같아.

'중간' 부분에서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써야지.

'끝' 부분에서는 주제를 강조하면 효과적이겠지.

1 글의 '중간' 부분에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할 내용을 찾아보자.

2 '중간 ②'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더 생각해 보자.

::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연우는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 보면서 통일성 있게 썼는지 점검하였다.

이끌기

각 문단에서도 세부 내용이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해요.

제목 종이 신문을 읽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 전화를 들고 누리 소통망[SNS]에 접속한다. 간밤에 누가 내 게시물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한다. 학교에 다녀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어제 놓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문을 읽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문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 주는 매체이다. 인터넷 검색이 편하고 효율적이며, 텔레비전은 재미와 생동감이 넘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신문만 한 것이 없다. 특히, 종이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상을 보는 가장 효율적인 창이 된다.

인터넷 신문은 조회 수를 높이려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지만, 종이 신문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실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 준다. 게다가 종이 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신문을 읽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 대학 연구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을 읽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서도 성적이 높았다고 한다.

둘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경영인 ○○○의 성공 비결은 '신문 읽기'였다. 초등학교에서 한 공부가 전부였던 그가, 현명함과 판단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이 신문이라고 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배달된 신문들을 꼼꼼히 읽어 정보를 축적했다는 그에게는 신문이 교과서였다.

• 누리 소통망[SNS, 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

종이 신문을 읽는 일이 도움된다는 것을 알아도 뻔뻔한 활자들과 넓은 지면을 보면 흥미보다는 부담이 생길지도 모른다. 신문을 쉽게 읽으려면 처음에는 표제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어 보자. 문화, 스포츠, 경제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다. 신문 기사의 형식이나 자주 쓰이는 단어 등에 차츰 익숙해지면 좀 더 꼼꼼히 읽게 된다. 신문 읽기의 고수들도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읽기를 추천한다.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 주는 종이 신문을 읽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다양한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어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시간이 나면 휴대 전화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고, 종이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이끌기

내용 조직하기의 활동 2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적어 보세요.

1 다섯째 문단의 부분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보자.

2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글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고쳐 써 보자.

(1)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글을 점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 😞
•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 😐 😞
•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가?	😊 😐 😞
•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가?	😊 😐 😞
• 문단 안의 각 문장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 😐 😞

(2) (1)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까닭을 적어 보자.

• 고치고 싶은 부분
• 고치고 싶은 까닭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고쳐 써 보자.



알아두기

● 통일성의 의미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의미함.

● 통일성 있는 글 쓰기의 필요성

통일성 있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음.

● 통일성 있는 글 쓰기의 과정

'계획하기 → 내용 선정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로 이어지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점검하며 글을 씀.

문제 해결관 적용

::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는 글 쓰기

1 다음 질문에 답해 보면서 어떤 글을 쓸지 계획해 보자.

이끌기

자신의 관심거리에서 주제를 정해 글을 써 보아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거나 막연하게 설정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해 보세요.

• 시사 평론(時事評論):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정세나 사건 등을 평가하여 논한 글.



○

• 나의 관심거리: _____

• 주제: _____

• 목적: _____

• 예상 독자: _____

○

2 다양한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한 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자.

이끌기

책, 잡지,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등에서 다양한 내용을 선정하되, 통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가려내도록 해요.

선정한 내용	출처	어떻게 활용할까?

 이끌기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는 앞 단원에서 배운 요약의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글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돼요. 내용을 선정할 때는 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자료의 출처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선정한 내용	출처	어떻게 활용할까?

선정한 내용	출처	어떻게 활용할까?

선정한 내용	출처	어떻게 활용할까?



문제 해결과 적용

이끌기

설명하는 글은 처음에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중간에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끝에서 요약할 수 있어요.

주장하는 글은 처음에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중간에 원인과 해결 방안을 쓴 다음, 끝에서 주장을 강조할 수 있어요.

3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의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조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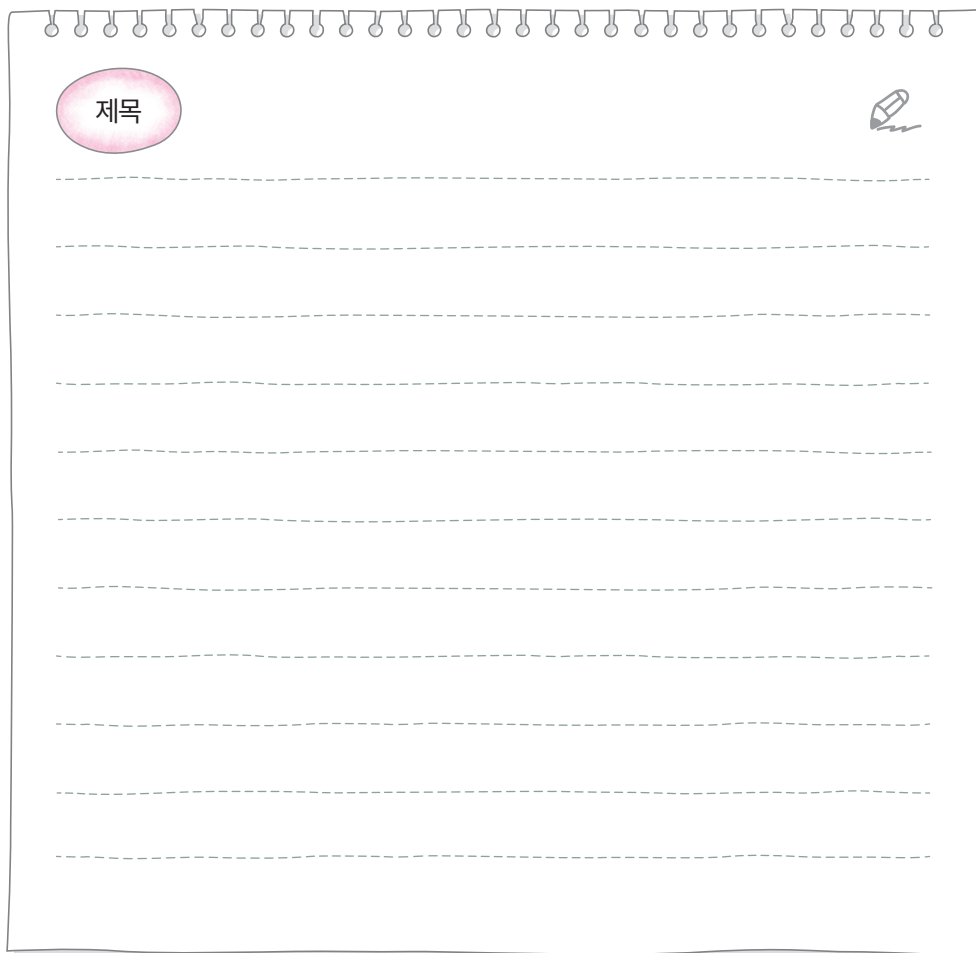
이끌기

내용을 조직하면서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제와 거리가 먼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4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이 알맞게 조직되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자.

 이끌기

내용을 표현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써 보는 것이 좋아요.

5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 보자.


* 활동지 양식은 교과서 211쪽에 있어요.

 이끌기

먼저 글 전체를 보고 각 문단이 주제를 뒷받침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단 안에서 각 문장이 중심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세요.

6 친구들과 글을 돌려 읽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통일성 있는 글이 되도록 고쳐 써 보자.

평가 기준	평가
•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 😞
•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 😐 😞
•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가?	😊 😐 😞
•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가?	😊 😐 😞
• 문단 안의 각 문장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 😐 😞

* 활동지 양식은 교과서 212쪽에 있어요.



- 1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점검할 내용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점검 항목

- 글의 □□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하였는가?
-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가?
-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가?
- 문단 안의 각 문장이 □□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 2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글의 _____ 와/과 세부 내용 간의 밀접한 연결을 통일성이라고 한다.
- (2)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이어지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_____ 을/를 고려해야 한다.
- (3)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_____ 해야 한다.

나도 선생님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내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짝과 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통일성 있는 글을 써야 하는 까닭

글쓰기의 과정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내용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나요?	☆☆☆☆☆	☆☆☆☆☆
• 내용을 설명할 때 통일성을 고려하였나요?	☆☆☆☆☆	☆☆☆☆☆

(1) : 신문이나 잡지 기사의 제목.

부제: 서적, 논문, 문예 작품 등의 제목에 덧붙여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

전문: 한 편의 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글.

본문: 문서에서 주가 되는 글.

기존보다 2억년 앞선 생물 흔적 발견
지구생명체 탄생시기 논쟁 불붙을듯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됐다. 무려 37억년 전 지구에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으로 기존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과 비교했을 때 2억년 앞서 살아있던 생물로 추정된다.

앨런 닥터먼 호주 올림피아대 교수 연구진은 그린란드에서 37억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지난달 31일자에 게재됐다.

2012년 애플은 그린란드 남서부 해안지대인 아스트로 자이클러 스트로말라이트와 화석을 발견했다. 스트로말라이트는 남조류와 같이 알려진 바에서 살던 해균이 남긴 흔적이다. 이러한 한국지대에서는 자질배와 같은 조류류가 아닌 화석의 같은 근연관계한 정맥류로 돼 있다"며 "이 부분과 같은 화석은 처음으로 확인된 바에서 조류와 동등함을 가진 스트로말라이트가 발견돼 대단히 흥미롭다. 현재 호주 서쪽에 있는 시크리안에서는 남조류가 만들어낸 스트로말라이트가 자주 발견된다."



하는 물리적인 힘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연구진 발견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1~4cm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4년간 분석한 결과 생물체가 남긴 흔적으로 결론 내렸다.

46학년 자기가 만들어낸 뒤 생경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40여년 전으로 추정된다. 자기가 처음 생겼을 때는 뜨거운 열량이 자기를 뒤덮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서 생경해서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생경한 자기가 계속 뒤 생경했던 것이다. 이른 자 생경해서 출현했다.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생경을 토대로 국제회의에서는 자 생경해서 탄생 기와 경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 만고수는 "생경하는 어떤 상황에 나타날 수 있다"며 "자 생경 초기에 생경보다 다양한 생물이 자 주해왔다"고 말했다.

[illegible]

(2) : 중요한 정
세나 사건 등을 평가
하여 논한 글.

“출산을 높여야 국가 생존할 수 있어”

● 조계종 종정 ○○스님…10억원 기금조성 출산장학금

[illegible]

법부 비판, 국민이 예정있기 때문”

서울평화상에 무퀘게 판지병원장

여성·아동 인권 실태 헌신...전정 심태 알리다 목숨 걸음

[illegible]

1.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2.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3.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4.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5.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6.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7.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8.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9.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10. 2000년 12월 15일 14시 30분

인사: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

연사

[illegible]

부음

※ 본지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 해외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후원으로 발행되는 후원회비를 게재합니다. 후원회비 100%가 후원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회비 100%가 후원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회비 100%가 후원회비로 사용됩니다.

한국전산산업진흥회 회장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 俗文化語彙

[illegible]



그림 소개하기

✎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이 그림의 제목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언니가 읽던 소설의 표지에서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림 속 소녀는 마치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페르메이르가 그린 것으로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페르메이르는 칠흑 같은 검은 배경에 부드러운 빛과 그림자로 소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살짝 머금은 듯한 미소와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길과 표정은 꼭 제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소녀의 큰 눈과 소녀의 귀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는 그림이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바라보며 잠깐 소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림 소개하기 과정

- 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림을 골라요.
- ② 그림에 관한 자료를 여러 매체(책, 잡지,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등)에서 찾아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요.
- ③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소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요.
- ④ 통일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다듬어요.
- ⑤ 쓴 글을 참고하여 친구들에게 그림을 소개해요.

도움말 실제로 미술관에 가면 좋겠지만, 인터넷 미술관이나 화집에서 그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도움말 큰 종이에 그림을 출력하거나 교실 텔레비전 화면에 그림을 띄워 놓고 발표할 수 있어요.

1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고, 그것을 고른 까닭을 적어 보자.

내가 고른 그림	
고른 까닭	

2 그림에 관한 자료를 여러 매체에서 찾아 요약하고 정리해 보자.

내용	
출처	

내용	
출처	

내용	
출처	

내용	
출처	

3 주어진 시간에 맞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보자.

처음	
중간	
끝	

4 통일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다듬어 보자.

This is a worksheet template with a large, lined area for writing. In the bottom-left corner, there is a small, tilted photograph of five students (three girls and two boys) sitting at a desk, looking at papers. To the left of the photo is a light blue speech bubble containing the Korean word '오늘' (Today). Above the photo is a yellow speech bubble containing the Korean text '이것도 멋지다!' (This is also cool!). In the top-right corner, there is a small icon of a pencil writing a line. In the bottom-right corner, there are two small, empty circles. The entire page is framed by a dashed line.



5 4에서 쓴 글을 참고하여 친구들 앞에서 그림을 소개해 보자.

6 친구들이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보자.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평가 기준	발표한 친구		
• 자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였는가?			
• 자료의 내용을 잘 요약하였는가?			
• 그림을 소개하는 내용에 통일성이 있는가?			
• 그림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발표하였는가?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1) 요약하며 읽기

-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의 점검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 글을 쓸 때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 다양한 자료에서 통일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 글을 쓰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나의 점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적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 보자.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른 핵심 역량을 확인해 보자.

☐☐☐☐☐☐



생활 속 요약, 어디까지 해 봤니?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기에 너무도 편리한 요약. 요약은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요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세등등 등갈비

- ❶ 등갈비에 간장, 설탕, 청주, 후추를 넣어 밑간한다.
- ❷ 적당한 크기로 썬 대파와 으깬 마늘을 밑간한 등갈비와 섞는다.
- ❸ 찜기에 면포를 깔고 등갈비를 넣고 찜다.
- ❹ 채 썬 양파와 으깬 마늘을 섞은 뒤 물, 식초, 간장, 설탕을 2:2:1:1의 비율로 넣어 양념을 만든다.
- ❺ 양념에 레몬즙과 참기름, 후추, 소금을 더한다.
- ❻ 찜 등갈비에 양념을 뿌려 담아낸다.



요리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요리법도 요약의 하나예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는 미네소타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게 된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라일리는 다시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고 싶어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라일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라일리의 다섯 가지 감정이 등장인물로 나온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이다. 미네소타에서 살던 어렸을 때 라일리의 감정은 기쁨이가 주도했다. 그러나 이사 와서 적응하기 힘든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감정은 주로 슬픔이와 버럭이가 주도한다.

라일리는 이런 슬프고 화나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미네소타로 가려다가 마음을 돌린다. 그리고는 어렸을 적 기억을 돌아보면서 슬픔을 인정한다. 그리고 과거의 즐거운 기억과는 이별하는 대신 가족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슬픔을 받아들이면서 라일리는 더 성숙해진다.



영화의 줄거리도 영화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 주는 요약이에요.

90분의 축구 경기를
단 몇 분으로 편집한
주요 장면 영상도
요약이지요.



자신의 하루를 요약해서
누가 소통망[SNS]
또는 블로그에
올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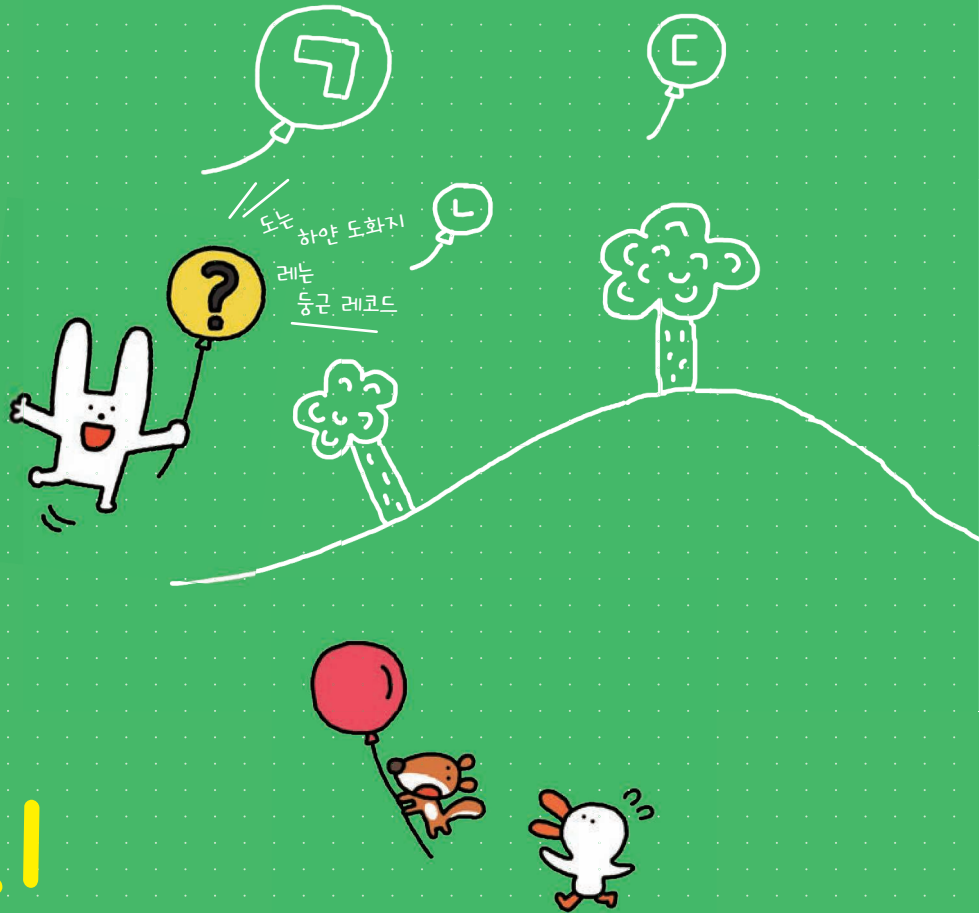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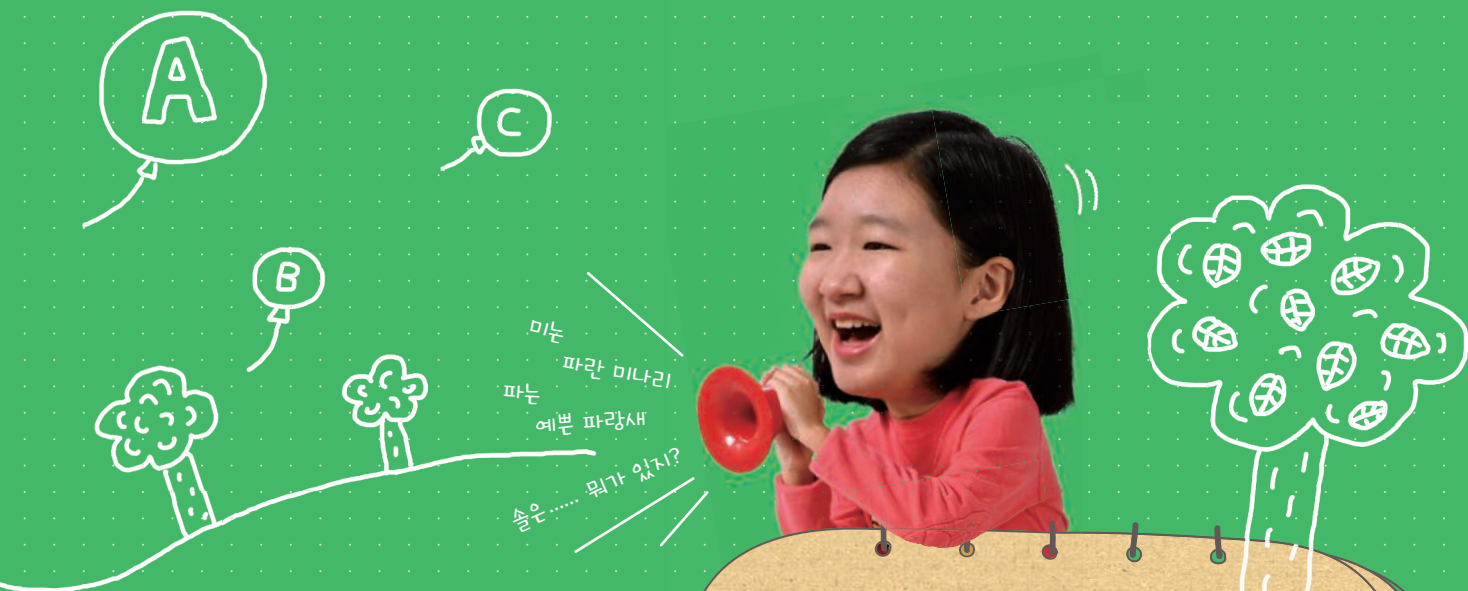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약에는 어떤 것이 더 있을지 생각해 보자.

3

언어의 세계

문법





(1) 언어의 본질

(2) 단어의 갈래

대단원 학습 목표

-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삶과 언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더욱 풍부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본질을 몇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이해한 다음, 우리말 단어의 갈래와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생활 속의 다양한 언어 현상을 살피고 탐구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수준 높은 국어 문화를 누리게 되도록 해요.

1

언어의 본질

☀ 학습 목표 •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의 중요성 알기



이해와 탐구

- 언어의 본질 이해하기



문제 해결과 적용

- 생활 속에서 언어의 본질 파악하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언어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
- ②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알아. ☐ 5~6학년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훈민이와 친구들은 학교 축제 오락 시간에 ‘내 마음을 맞혀 보’ 놀이를 하게 되었다. 다음 상황처럼 짝에게 자신이 전하려는 바를 언어를 쓰지 않고 표현해 보자.



- ① 짝에게 자신이 전하려는 바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 ② 언어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말해 보자.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소리와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말소리와 글자를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는 ‘’를 나타내려고 ‘나무’라고 쓰고 발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언어의 자의성

아름이는 왜 ‘’를 ‘나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졌다. ‘’를 ‘나무’로 부르게 된 데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



1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를 탐구해 보자.

(1) 다음은 각 언어에서 ‘’를 나타내는 단어와 말소리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와 말소리를 넣어 보자.

한국어 나무[나무]		중국어 樹[슈]
영어		일본어 樹[기]

(2) 각 언어에서 ‘’을 나타내는 단어와 말소리를 찾아 써 보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단어와 말소리	손[손]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반드시 하나인지 말해 보자.

이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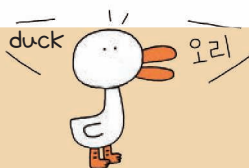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보자.

보기

- 자의적(恣意的):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 필연적(必然的):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이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별로 다른 것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우연히 결정된 것인데,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자의성(恣意性)이라고 한다.

:: 언어의 사회성

다운이는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다다’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



1 다음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언어의 본질을 탐구해 보자.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하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중략) 어쩌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말이야.”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합시다.” 하고 고함지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피곤하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 페터 빅셀, <책상은 책상이다>에서

 이끌기

특정한 사물을 부르는 말을 바꿀 때 이미 있는 말로 바꾸어도 되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바꾸어도 돼요. 예를 들어 '시계'는 '안경'으로 바꾸거나 '호비'로 바꿀 수 있어요.

(1) 이 글의 인물처럼 특정한 사물을 부르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보자.

사물	바꾸어 부를 말
 시계	호비

(2) (1)에서 바꾼 말을 사용하여 짝과 대화해 보고,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진 언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있다/없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사회성(社會性)**이라고 한다.

:: 언어의 역사성

우람이는 ‘나모’가 ‘나무’의 옛날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
서 변하기도 할까?



이끌기

‘가람’이 나타내는 대상을 텔
레비전 화면에서 찾아보세요.

1 밑줄 친 말이 나타내는 대상을 오늘날에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말해 보자.



2 가와 관계가 깊은 것을 나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가

- 나무는 예전에 '나모'라고 불렀다.
- '어리다'는 예전에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 지능'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온', '즈믄'은 예전에는 각각 '백(百)', '천(千)'을 뜻하는 말로 쓰였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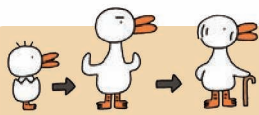
새로 생긴 말

사라진 말

소리나 의미가 변한 말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변하지 않는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역사성(歷史性)이라고 한다.

:: 언어의 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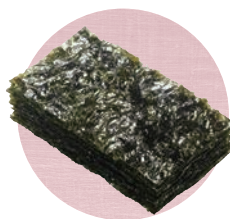
강산이는 ‘나무’라는 말로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처럼 인간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을까?



1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끌기

‘밥’이라는 단어로 ‘김밥’, ‘콩밥’, ‘나물밥’, ‘비빔밥’, ‘볶음밥’ 등의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밥’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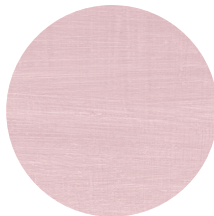


밥

→



김밥



+



밥

→



밥

(2) ‘하늘’과 ‘구름’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친구의 것과 비교해 보자.

- 예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 예 나는 하얀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 좋아.

•

•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

인간은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없다).



인간은 단어 또는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단어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 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창조성(創造性)이라고 한다.

문제해결과 적용

이끌기

생활 속에서도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각 사례에서 초점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 나와 관계 깊은 언어의 본질을 보기에서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보자.

보기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가

‘짜장면’, 표준어 됐다

방송인 정도만 ‘자장면’이라 발음하던 ‘짜장면’이 마침내 표준어가 됐다. 국립국어원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을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했다고 31일 말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범과 실제 사용 간 차이에서 발생한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11년 8월 31일 자에서

나

최근 ‘올레길’, ‘바우길’, ‘둘레길’ 등 우리말로 된 길 이름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길 이름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은 것으로,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단어를 모아서 또 다른 말을 만들 수도 있구나.

- 규범(規範):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특색(特色): 보통의 것과 다른 점.

가

- 언어의 본질: _____
- 그렇게 생각한 까닭: _____

나

- 언어의 본질: _____
- 그렇게 생각한 까닭: _____

이끌기

《프린들 주세요》는 소년 닉이 ‘펜’이라는 말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담은 소설이에요.

2

생활 속에서 다음 소설의 일부를 읽고, 언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만들어 보자. **모둠**

닉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이런 낱말은 이런 뜻이고 저런 낱말은 저런 뜻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개’라는 말이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뜻한다고 누가 정했나요? 누가 그런 거죠?”

선생님이 닉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닉.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여기가 프랑스라면 그 털복숭이 네발짐승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시앵’이라고 불렀을 거야. 우리말로로는 ‘개’지. 독일어로는 ‘하운드’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말이 있어. 하지만 이 교실에 있는 우리가 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면, 개는 그 이름으로 불릴 테고, 나중에는 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야. 사전에 나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란다.”

선생님은 닉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전은 아주 똑똑한 사람 수백 명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법이나 마찬가지란다. 물론 법도 변하지만, 꼭 변해야 할 때만 변하지. 새 낱말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전에 있는 낱말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전에 올라 있는 거야.”

(중간 부분의 줄거리)

그레인저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던 닉은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닉은 펜을 집어서 자넷에게 건네주었다.

“자…….”

닉은 ‘펜’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 프린들.”이라고 했다.

“프린들?”

자넷은 볼펜을 받아 들며 ‘바보 아냐?’ 하는 눈빛으로 닉을 쳐다보았다.

— 앤드루 클레먼츠, 《프린들 주세요》에서



문제 해결과 적용

이끌기

가와 나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과 관련된 언어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1) 가와 나에 드러난 언어의 본질을 파악해 보자.



① 가는 언어의 _____ 과 관계가 깊어.

왜냐하면 _____

② 나 는 언어의 _____ 과 관계가 깊어.

왜냐하면 _____

이끌기

닉이 펜을 계속 프린들로 부르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모둠원과 상의하여 이어질 내용을 꾸며 보세요.

(2) 모둠원과 상의하여 이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만들어 보자.



(3) (2)에서 만든 내용을 모둠별로 돌려 읽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 새로 만든 내용에 언어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가?	😊 😐 😞
• 새로 만든 내용이 흥미로운가?	😊 😐 😞
•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둠원과 잘 협동하였는가?	😊 😐 😞

1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언어의 본질과 관계 깊은 사례를 연결해 보자.

언어의
본질

사례

(1)
자의성

㉠ 옛날에는 '꽃'을 '꽃'이라고 불렀다고 해.

(2)
사회성

㉡ '안녕'을 내 마음대로 '도이'라고 바꾸어 말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3)
역사성

㉢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소리는 언어별로 달라.

(4)
창조성

㉣ '가을'과 '오다'로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봐야지.

나도 선생님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짝과 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개념을 알기 쉽게 말하였나요?	☆☆☆☆☆	☆☆☆☆☆
•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적절하게 들었나요?	☆☆☆☆☆	☆☆☆☆☆

1 다음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 | | | | |
|---------|---|---|--|
| (1) 본질 | • | • |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 |
| (2) 창조 | • | • | ㉡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
| (3) 자의적 | • | • | ㉢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 |
| (4) 필연적 | • | • | ㉣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 |



2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 보자.

- (1) 누나와 나는 얼굴은 닮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다/틀리다).
- (2) 그림 그리기가 무척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됐다).
- (3) 자리에 앉아 그 문제를 (곰곰이/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2 단어의 갈래

☀ 학습 목표 •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분류의 효과 생각하기



이해와 탐구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특성 알기



문제 해결과 적용

-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품사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어. ☐ 3~4학년
- ② 평소에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 5~6학년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정음이와 사랑이가 시간표를 보며 교과서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두 학생이 교과서를 챙기는 모습은 많이 다른데…….



- ① 사랑이와 달리 정음이가 책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 ② 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말해 보자.



1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이끌기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보기처럼 여러 가지 문장을 만
들고, 형태가 변하는 단어와 형
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로 나누
어 보세요.

1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자.

보기

- 산이 참 푸르다.
- 너는 손이 참 크구나.
- 우리는 산을 바라보았다.
- 책상 위에 큰 공책이 있다.

산 크다 앓다 우리 아주
어머니 따뜻하다 만들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산,

형태가 변하는 단어

크다,

이끌기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란 단
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뜻
해요.

2 다음 단어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자.

책 정말 매우 동생

(1) **가**와 **나**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골라 보자.

가	나
• 이/가 방에 있다. • 보람이는 어제 을/를 보았다.	• 이 영화는 재미있다. •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이다.

가

- _____
- _____

나

- _____
- _____

이끌기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고,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2) (1)을 바탕으로 하여 위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단어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이끌기

여기에서 의미란 각 단어들이 지닌 공통적인 의미를 뜻해요. 예를 들어 '첫째'라는 단어는 개별적으로는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라는 뜻을 지녔지만, 공통적으로는 '둘째, 셋째'와 함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3 다음 밑줄 친 단어를 의미에 따라 나누어 보자.

철수가 빨간 사과를 하나 샀다.

-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품사(品詞)란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이다.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명사, 대명사, 수사

생일을 맞은 여우가 친구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여우의 말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명사에 관해 알아보자.

(1) **보기**에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자.

보기

나무	행복	평화	얼굴
이순신	차갑다	자유	흔들다

이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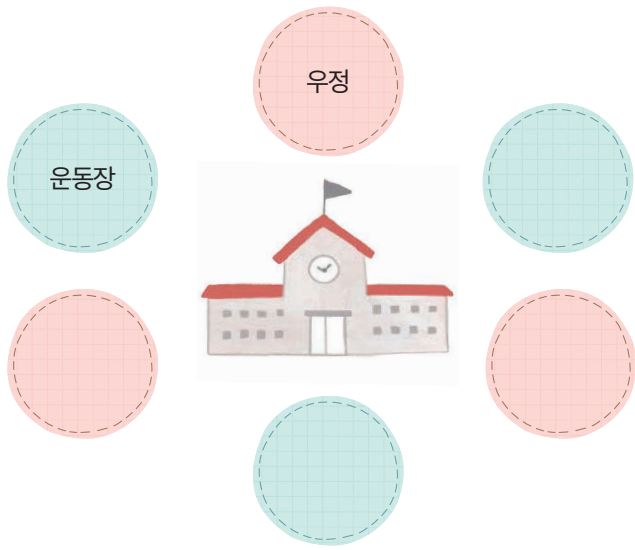
‘사과’처럼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하고, ‘사랑’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에 해당해요.

(2) (1)에서 찾은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

(3)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떠올릴 수 있는 명사를 써 보자.



2 대명사에 관해 알아보자.

혁진: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수연아, 이것 좀 봐.
 수연: 와, 예쁘다. 나는 빨간 단풍잎도 보기 좋더라.
 혁진: 학교 근처 공원에 단풍나무가 많던데, 너도 거기에 가 봤어?
 수연: 응, 가을 풍경이 정말 멋있더라고.

(1) 이 대화에서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 써 보자.

단어	이것	나	너	거기
가리키는 대상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밑줄 친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4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보기

나 셋 모든 놀다 선생님 높다

이끌기

보기의 단어를 빈칸에 하나씩 넣어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1)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모두 찾아보자.

- 은/는 노래를 불렀다.
- 주희는 등갓길에 을/를 만났다.

(2) (1)에서 찾은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어 보자.

명사	대명사	수사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 보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고,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하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한다. 이들은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여 몸의 기능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 **체언(體言)**이라고 한다.

:: 동사, 형용사

여우는 두루미에게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지만, 두루미는 여우가 차려 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두루미의 생각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동사와 형용사에 관해 알아보자.

(1) 다음 문장에서 대상의 움직임 또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자.



- 날씨가 맑다.
- 새가 하늘을 난다.
- 연수가 달린다.
- 연수가 매우 빠르다.

(2) 위 활동에서 찾은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 (3)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다음 사진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를 써 보자.



이끌기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해요. 이를 활용이라고 해요. 또한, 활용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기본형이라 하지요.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해요.

예 기본형: 가다

활용형: 가자, 간다, 가라, 가니, 가는구나 등

이끌기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라’와 같은 명령형이나 ‘자’와 같은 청유형을 쓸 수 없어요.

예 가다(동사)

- 건홍아, 가라. (○)
- 건홍아, 가자. (○)

예쁘다(형용사)

- 지선아, 예뻐라. (×)
- 지선아, 예쁘자. (×)

2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 (1) **보기**를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고,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 알맞게 형태를 바꾸어 써 보자.

보기

먹다 → (동사)

- 나는 간식으로 빵을 **먹었다**.
- 건이야, 점심 **먹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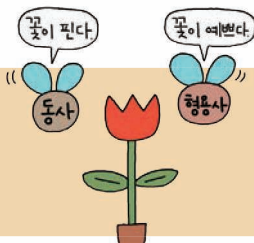
쓰다 → ()

- 나는 매일 일기를 .
- 화온아, 종이에 무엇을 ?
- 글씨를 또박또박하게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다.

작다 → ()

- 동윤이는 눈이 .
- 신발이 너한테 많이 ?
- 칠판의 글씨가 뒷자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 보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므로, 이들을 묶어 **용언(用言)**이라고 한다.

:: 관형사, 부사

두루미는 집에 돌아와 여우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두루미의 혼잣말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관형사와 부사에 관해 알아보자.

이끌기

밑줄 친 단어와 그 뒤의 단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 꽃이 활짝 피었다.
- 모든 학생이 운동장에 나왔다.
- 나는 청소를 하면서 헛 옷을 버렸다.
-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2) (1)의 밑줄 친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

이끌기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3)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하고,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형사나 부사를 넣어 보자.

-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셨다.
- 이 방은 햇빛이 잘 들어서 환하다.

2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 가 나는 책을 읽었다.
나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

- (1) **가**와 **나**에서 관형사와 부사를 찾아보자.
- (2) **가**와 **나**의 뜻을 비교해 보고 두 문장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관형사와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 보자.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하고,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 수식언(修飾言)이라고 한다.

:: 조사

두루미는 여우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두루미의 말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조사에 관해 알아보자.

(1) 예문의 ‘가’, ‘에’와 같이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에 붙어서만 쓰이는 단어를 다음 문장에서 찾아보자.

예 은수(가) 학교(에) 갔다.

- 나는 미소를 지었다.
-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

이끌기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이다’는 형태가 변해요.

예 나는 중학생이고, 형은 고등학생이다.

(2)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한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사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이/가 을/를 에서 만 이다

- 수미 방 공부한다.
- 다른 사람들은 녹차를 마셨고, 나 물 마셨다.
- 내 취미는 피아노 연주 .

2 조사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이끌기

가와 나에 쓰인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두 문장의 뜻을 비교해 보세요.

(1) 가와 나의 뜻을 비교해 보자.



가 고양이가 쥐를 찾고 있다.



나 고양이를 쥐가 찾고 있다.

나는 가와 나의 뜻이 (같다고/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때문이야.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 보자.

(3) 가~다의 뜻을 비교해 보고, 나와 다의 밑줄 친 조사가 각각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말해 보자.

가 효주가 굴을 좋아한다.

나 효주가 굴만 좋아한다.

다 효주가 굴도 좋아한다.

• 나 만:

• 다 도: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또한,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언(關係言)이라고 한다.

:: 감탄사

두루미는 긴 병에 수프를 담아 여우에게 대접했다. 수프를 먹을 수 없었던 여우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두루미에게 사과했다. 두루미와 여우의 대화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감탄사에 관해 알아보자.

(1)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	부름을 나타내는 단어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

이끌기

감탄사는 하나의 단어로 느낌, 부름, 대답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런데 친구를 부를 때 '수연아'라고 하면, 이것은 두 단어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감탄사가 아니에요.

(2)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한다. 다음 상황에 적절한 감탄사를 빈칸에 넣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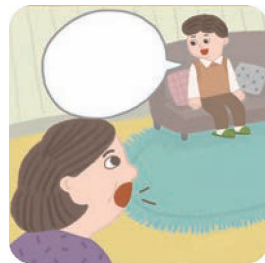
•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 복도에서 앞에 가는 친구를 부를 때



•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말에 대답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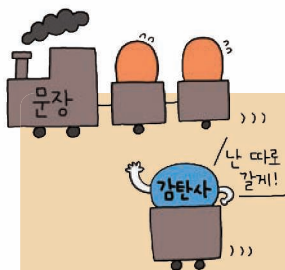


2 감탄사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1) 다음 대화에서 감탄사를 찾아 밑줄을 쳐 보자.

민우: 야호, 드디어 산꼭대기에 도착했네. 나래야, 오래간만에 등산하니 힘들지?
나래: 아니, 오래간만에 땀을 흘리니 기분이 상쾌해.

(2) 밑줄 친 감탄사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지 말해 보자.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한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독립언(獨立言)이라고 한다.

1 다음 글을 읽고, 품사를 분류하는 활동을 해 보자.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중략)
 눈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 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 좋지만 수박 맛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 황순원, <소나기>에서



(1) 밑줄 친 단어 가운데 명사, 대명사, 수사를 모두 찾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명사	대명사	수사
소녀,		

이끌기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형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 것이예요.

(2) 밑줄 친 단어 가운데 동사와 형용사를 찾고, 각 단어의 기본형을 써 보자.

품사	단어	단어의 기본형
동사	• 멈추며 • •	• 멈추다 • •
형용사	• •	• •

(3) 밑줄 친 단어 가운데 관형사와 부사를 찾고, 각 단어가 꾸미는 단어를 찾아
그 단어의 품사를 써 보자.

품사	단어	꾸미는 단어(품사)
관형사	•	•
부사	• 먼저 •	• 건넜다(동사) •

(4)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사를 넣어 보자.

“그럼, 참외 맛 좋지만 수박 맛 더 좋다.”

(5) 밑줄 친 단어 가운데 감탄사를 찾아보자.

2

생활 속에서 모듬별로 노랫말에 쓰인 단어를 품사별로 나누어 보자.



(1) 모듬별로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 노랫말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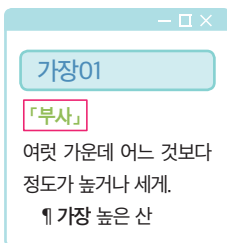
(2) 노랫말에 쓰인 단어를 다음과 같이 품사별로 나누어 보자.

예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부사 형용사 명사 조사 동사 대명사 명사

- 이단옆차기 외 작사, <하늘바라기>에서

이끌기

국어사전에서 품사를 확인
할 때는 □로 표시한 부분
을 살펴보세요.



(3)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단어를 품사별로 바르게 나누었는지 확인해 보자.

3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품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기 쉬운 표현을 바르게 고쳐 보자.

모듬

이끌기
 각 품사의 특성을 떠올리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1) 오른쪽 국어사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와 ㉡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국어사전

건강-하다02(健康--)

「형용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

㉠ 그는 아주 젊고 건강했다.

잘못된 부분

건강하세요

바르게 고친 것

• 서술격(徐述格):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
 게 하는 격.

> 보내기

미리 보기

임시 저장

☆

🗑

받는 사람

기훈

주소록

+

제목

기훈이에게

파일 형식

📁

㉡

벌써 가을 이구나.
 잘 지내고 있지?

국어사전

이다03

「조사」

「㉡」(체언 뒤에 붙어) 주어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 이것은 책이다.

잘못된 부분

바르게 고친 것

이끌기
 텔레비전 자막, 광고 문구,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
 지 또는 대화 등에서 품사의 특
 성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한 표
 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2) 모듬별로 일상생활에서 품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한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예

애들아, 좀 조용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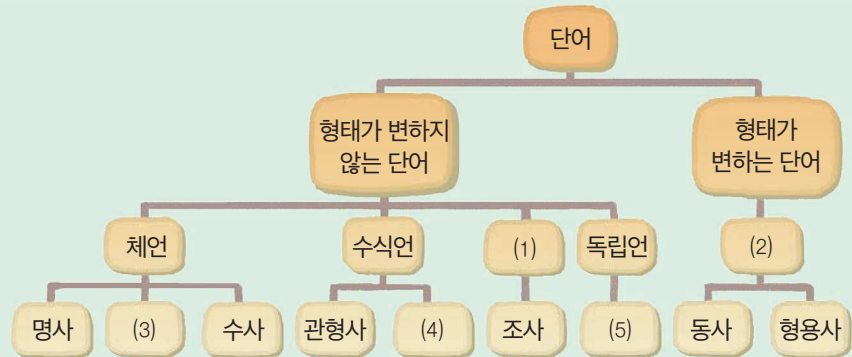
애들아, 좀 조용히 하자.

→

→



1 다음은 단어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2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를 _____(이)라고 한다.
- (2) 품사는 형태, _____, _____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3)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_____와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 (4) 관형사는 문장에서 _____을, 부사는 주로 _____을 꾸민다.

나도 선생님

- 다음 품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짝과 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체언

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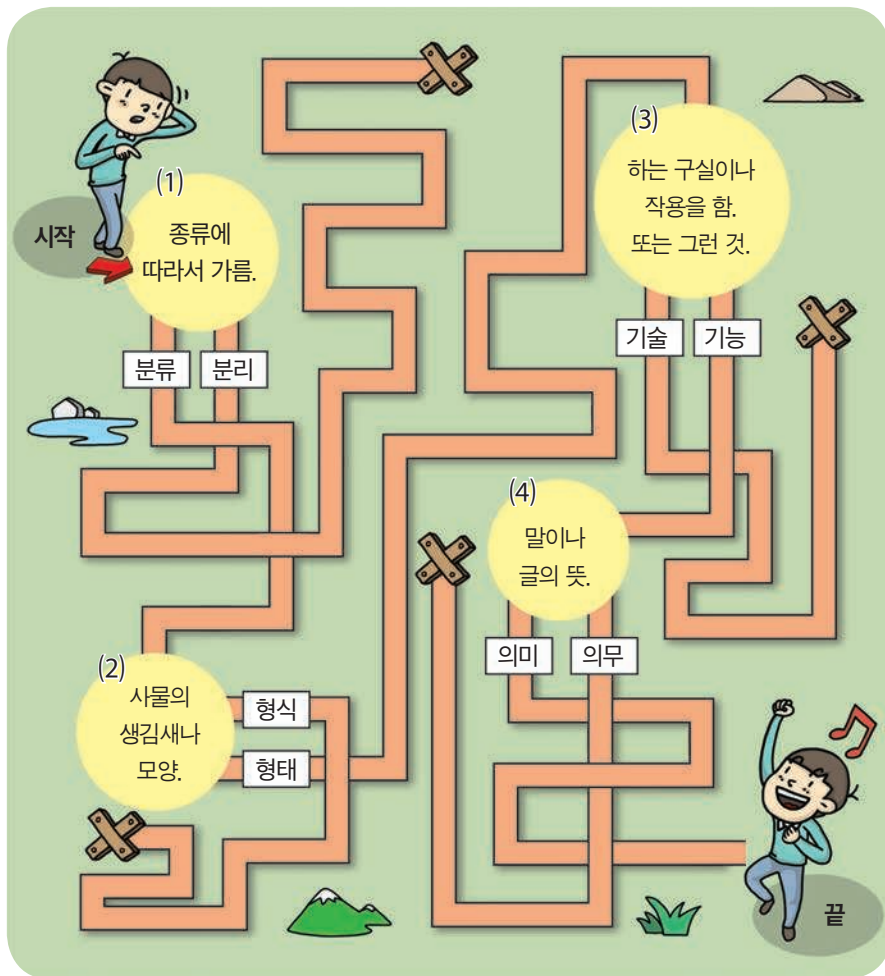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설명한 내용과 방법	친구	나
• 개념을 알기 쉽게 말하였나요?	☆☆☆☆☆	☆☆☆☆☆
•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적절하게 들었나요?	☆☆☆☆☆	☆☆☆☆☆

1 뜻풀이를 보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미로 찾기를 해 보자.



2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 보자.

- (1) 하늘을 (날으는/나는) 비행기
- (2) 자전거에 짐을 (싣고/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신기한 발명품 이름 짓기

신기한 발명품을 찾아 이름을 정하고, 알리판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정한 이름을 소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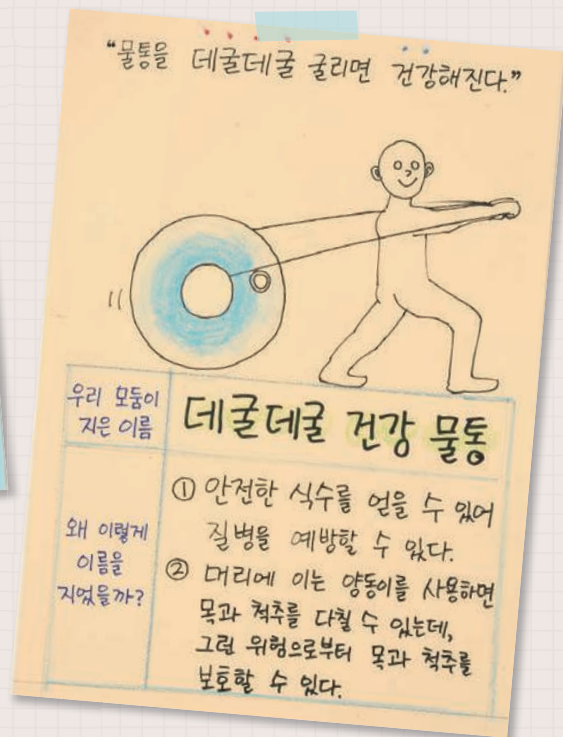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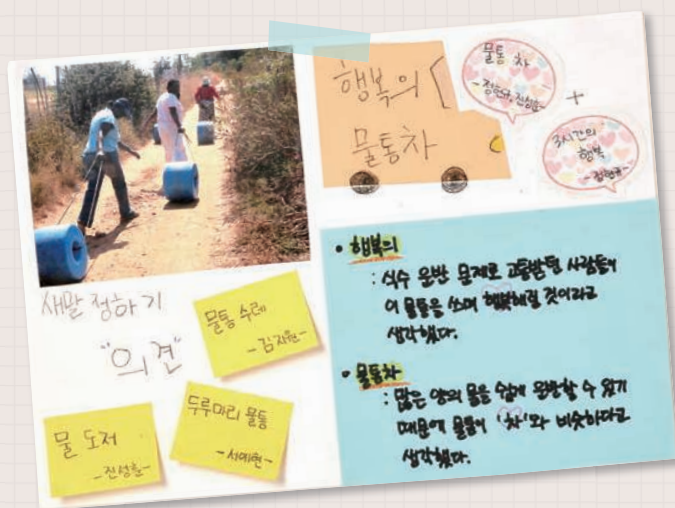
발명품 소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곳을 왕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명된 물통이다.

발명품의 특징

- 원통 가운데의 구멍에 줄을 연결해, 물통을 굴려서 물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게 했다.
- 머리에 이는 양동이를 쓰는 것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다.



신기한 발명품 이름 짓기 과정

- 1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발명품을 정하고 발명품의 특징을 정리해요.
- 2 발명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품사별로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보면서 이름을 지어요.
- 3 우리 모두가 알리고 싶은 발명품의 이름을 정해요.
- 4 우리 모두가 알리고 싶은 발명품과 그 이름을 소개하는 알리판을 만들어요.

도움말 발명품을 고를 때는 책과 인터넷 등을 참고할 수 있어요.

1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발명품을 정하고, 발명품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3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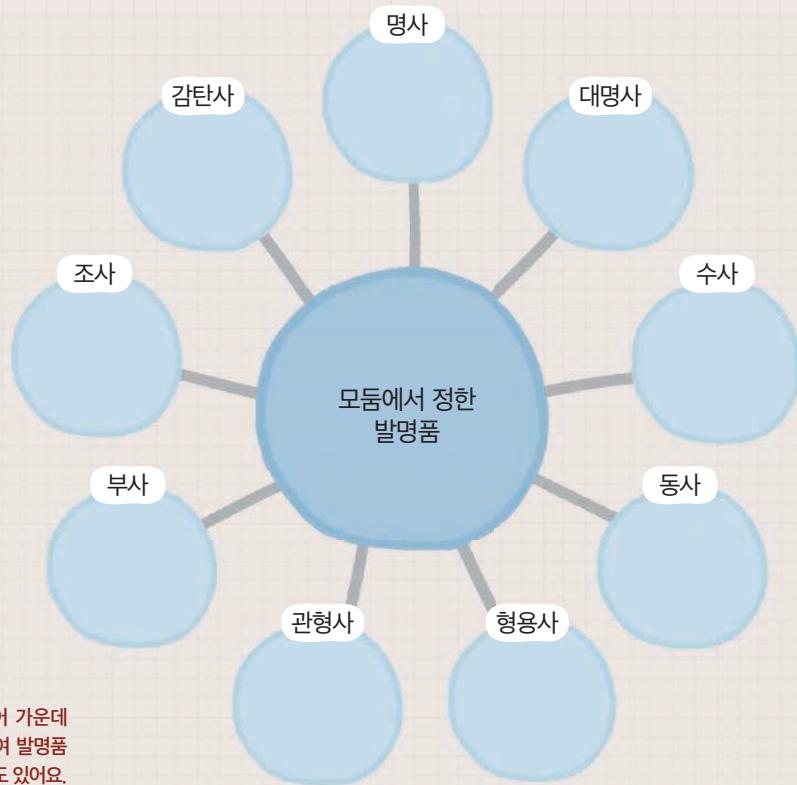
모둠에서 정한
발명품의 사진 등을
붙여 보세요.



우리 모듬은
이걸 해 볼까?

발명품 소개	
발명품의 특징	• • •

2 발명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품사별로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보면서 이름을 지어 보자.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까닭을 말해 보자.



도움말 떠올린 단어 가운데 여러 개를 결합하여 발명품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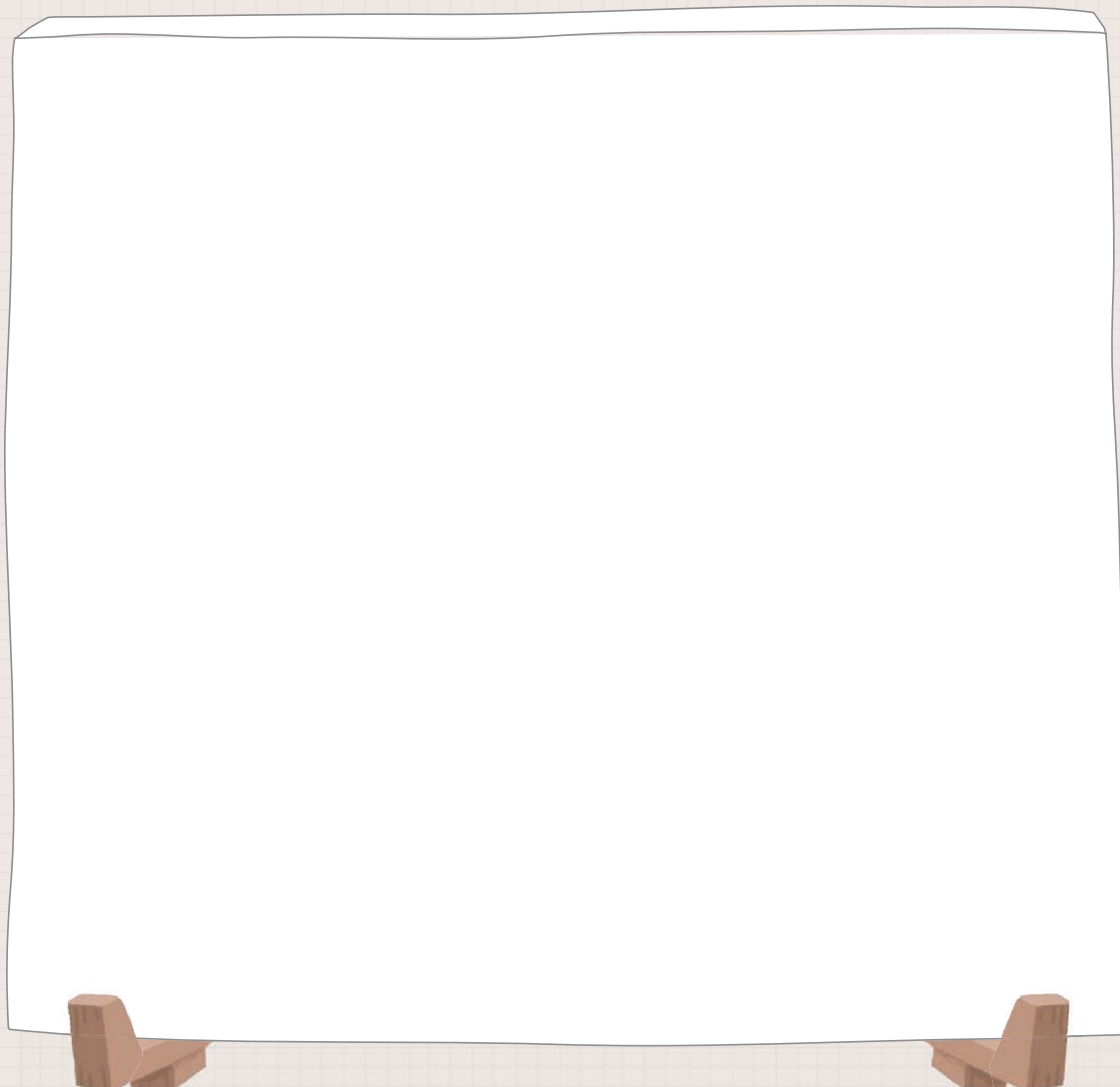
자신이 제안한 이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까닭

3 2에서 지은 이름을 모두 살펴보고, 우리 모둠이 알리고 싶은 발명품의 이름을 정해 보자.

모둠원이 제안한 발명품 이름	모둠원 이름
•	
•	
•	
•	

▶ 우리 모둠이 알리고 싶은 발명품의 이름: _____

4 우리 모둠이 알고 싶은 발명품과 그 이름을 소개하는 알림판을 만들어 보자.



5 각 모둠이 지은 발명품 이름 소개 알림판을 돌려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평가 기준	평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 발명품의 이름이 물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알림판이 보기 좋게 구성되었는가?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1) 언어의 본질

나의 점검

• 언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 언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2) 단어의 갈래

나의 점검

•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나눌 수 있다.



• 품사별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적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 보자.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른 핵심 역량을 확인해 보자.

☐☐☐☐☐☐

이름 짓기의 힘

이름 짓기의 힘을 알고 있나요? 구름에 이름이 없었던 때, 기상학자인 루크 하워드스는 구름의 모양에 따라 cirrus, cumulus, stratus 등으로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라틴어로 표현한 이 이름들은 우리말로로는 새털구름, 뭉게구름, 안개구름이라고 해요. 구름에 이름이 생긴 뒤 사람들은 구름의 특징과 종류, 모양에 관해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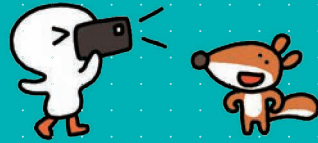
창의 **톡톡**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정확한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물의 이름을 지어 보자.



서로를 곱게 감사 줘요. 모두 여기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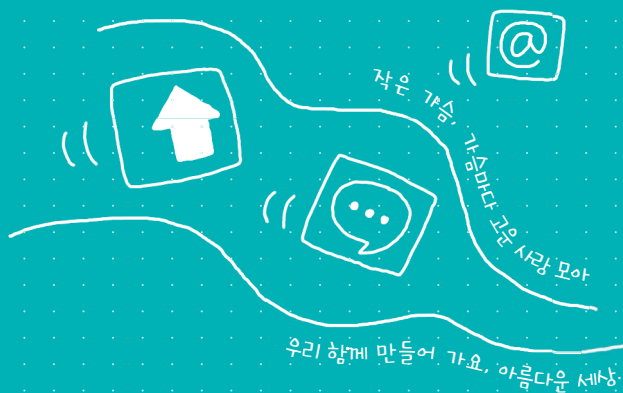
함께 살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다양한 의사소통

듣기·말하기

쓰기



(1) 토의하기

(2) 매체로 표현하기

대단원 학습 목표

-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표현할 때는 다양한 매체로 소통하기도 하지요.

이 단원에서는 토의를 하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고,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도 익힐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 등을 기를 수 있어요.

1

토의하기

☀ 학습 목표 •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토의의 필요성 알기



이해와 탐구

- 토의의 과정 이해하기
- 토의에서 필요한 태도 이해하기



문제 해결과 적용

- 모둠 토의를 하고 건의문 쓰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눈 경험이 있어. ☐
- ②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토의할 수 있어. ☐ 5~6학년
- ③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말을 들어려고 해. ☐ 5~6학년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훈민이네 반과 정음이네 반에서 겨울 방학에 어떤 체험 활동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같은 주제로 대화하지만 그 모습은 다른데…….



- 1 훈민이네 반과 정음이네 반에서 각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2 어느 반의 문제 해결 과정이 더 적절한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자.

이해와 탐구

:: 토의 주제 정하기

이끌기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를 뜻해요.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나오던 용욱이와 친구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다.

쓰레기의 양을 보고 놀란 용욱이와 친구들은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끌기

토의의 주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를, 그리고 구성원들이 관심을 두는 내용을 다루어야 해요.

1 용욱이와 친구들이 함께 토의하려는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용욱이와 친구들이 무엇을 토의하려고 하는지 말해 보자.

:: 토의 준비하기

이끌기

토의를 준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토의할지, 각자 역할은 어떻게 분담할지, 토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과 그에 따른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용욱이와 친구들은 토의를 준비하며 필요한 내용을 기록했다.

● 원탁 토의(圓卓討議): 4~10명의 토의 참가자가 둘러앉아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원탁 토의에서는 청중이 없을 때도 있음.

토의 계획서

- 1. 토의 방식 정하기**
 - 우리 5명이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 2. 토의에서 말을 역할 정하기**
 - ↳ 사회자, 토의 참가자.....
 - ↳ 사회자는 용욱이로 결정!
- 3. 의견 마련하기**
 - 자료를 조사해서 의견과 근거를 마련함.

원탁 토의

토의에서 지켜야 할 규칙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않기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의견을 제시하려면 현재 상황과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봐야겠지?

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의견과 근거를 정리했어.

이끌기

토의에서 의견은 주제를 분석해서 정리한 해결 방안을 뜻해요.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을 마련하거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1 토의에서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토의하기

용욱이와 친구들은 준비를 마치고 토의를 시작했다.

이끌기

토의에서는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의 참가자들이 제시한 의견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토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용욱(사회자)

지금부터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럼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한 사람이 매년 25~30킬로그램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니 참으로 엄청난 양이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규빈이의 행동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말해 보자.

규빈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킬로그램당 9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증가하여 학교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현황(現況): 현재의 상황.

연우

저는 비용보다 환경 오염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과 세균이 번식해서 학교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급식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응욱(사회자)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영양사 선생님과 면담해서 학생들이 음식을 버리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보여 주시면서, 현재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채소류이고, 육류는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연재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자.

일자	발생량	쓰레기 종류
○월 ○일	xxkg	 당근  시금치  버섯  오이  콩나물  양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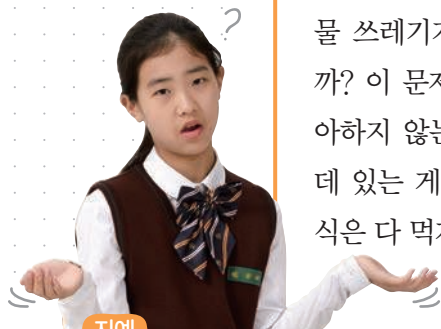
▲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

연재

〰 그래서 저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나머지 음식물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괄기

대화할 때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말의 속도, 크기 등 준언어적 표현과 손짓,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사용하여 생각을 전달해요. 토의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지혜

(두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럼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는데 있는 게 아닐까요? 좋아하는 음식은 다 먹게 되거든요.

저는 배식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김치만 학생들이 직접 담는 자율 배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찬은 나누어 주는 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받으니까 그만큼 남기거나 버리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연우

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식습관, 식단, 배식 방식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욱(사회자)

이 토의에서 분석한 급식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저는 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급식에서 자신이 먹은 것과 먹지 않고 버린 것을 날마다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된 점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형성되면 점차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 다 먹음. △ 남김. ✕ 전부 먹지 않음.)



연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점심 공밥 △	물먹밥 ○	칼국수 △	김치 볶음밥 ○			
연근 감자 ○	남백달걀밥 ○	연근 ○ (남김)	도라지 떡볶이 ✕			
배추 김치 △	간짜장 ✕	동그스떡볶이 ○	콩나물 국 △			
물하물 국 ✕	과자 물먹음 ✕	떡볶이 ○	당도리 연밥 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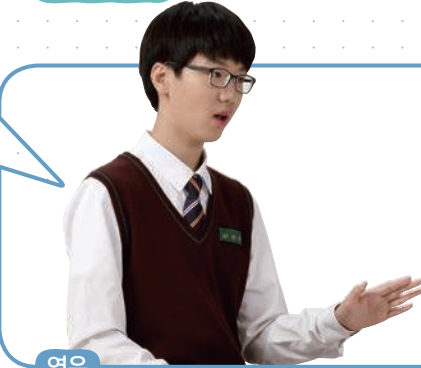
▲ 식습관 일지

• 논의(論議): 어떤 문제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연재 학생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용욱(사회자)



인터넷으로 △△중학교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자율 배식의 종류를 늘린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연우

저도 연우 학생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식단 전부를 자율 배식으로 한다면 음식을 받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또한, 학생들이 직접 뜨거운 음식을 담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되어 오히려 편식 습관을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빈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자율 배식의 종류는 지금보다 한두 가지 정도만 늘리고, 나머지는 음식을 받을 때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을 요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우

두 학생은 학교에서 자율 배식의 종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용욱(사회자)

이끌기

사회자는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요. 토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하고,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토의 참가자들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역할도 담당해요.



□□뉴스에서 보니,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열어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지예

저는 학생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단 공모전’을 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구성해 보면…….



규빈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짜나요?

지예

영양사 선생님처럼 식단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가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식단이 실제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규빈

토의 참가자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항의 질문

용욱이와 친구들의 토의를 보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예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



지금까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식습관 일지 쓰기’를,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 배식’을 늘리거나 ‘학교 행사’, ‘식단 공모전’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율 배식을 늘리는 것과 공모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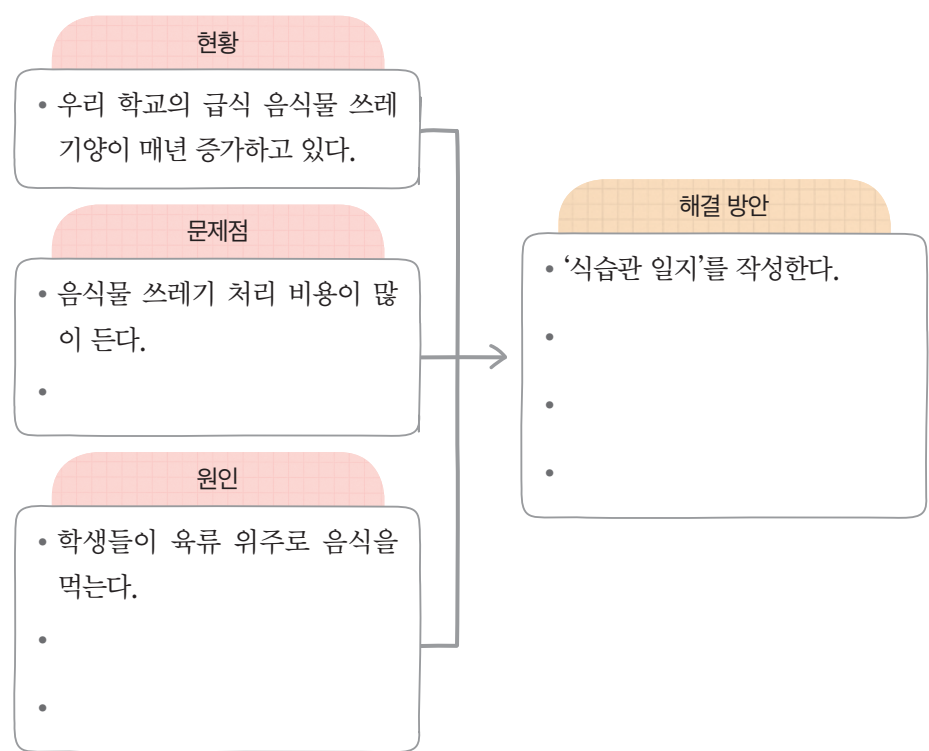
오늘 논의한 사항은 모두 정리하여 학생회 대의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모두 마칩니다.

용욱(사회자)

이끌기

토의 내용은 사회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또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아요.

1 이 토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이끌기

토의 참가자들이 제시한 의견과 그에 따른 근거를 확인하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할 수 있어요.

2 이 토의에서 참가자들이 활용한 자료를 정리해 보자.

토의 참가자	종류	출처	활용한 내용
연재	통계 자료	학교 영양사 선생님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		
규빈	신문 기사	○○신문	
연우		△△중학교 누리집	
지예	뉴스 영상	□□뉴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문제 해결의 사례로 들어 학교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끌기

제시된 토의 내용과 달리, 토의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면 그 느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3 다음 내용을 보고 토의에서 필요한 태도를 살펴보자.

- 규빈: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 지예: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짜나요?

(1) 두 학생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Blank writing area for student response.

잘못된 태도로 토의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



(2) 두 학생의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말해 보고, 그 까닭을 써 보자.

-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_____
-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까닭: _____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끌기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는 그 해결 방안이 토의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해요.

4 이 토의에서 나온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하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나는 _____ 의 해결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_____

이끌기

토의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5 이 토의를 보고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알아두기****토의의 표현 방법**

언어적 표현 의미 있는 음성, 즉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함.

준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로, 말의 속도, 크기, 침묵, 억양 등으로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함.

비언어적 표현 음성 이외의 동작 언어로, 자세, 손짓이나 몸짓, 표정 등으로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함.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함.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 함.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함.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함.
-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함.

문제 해결관 적용

:: 생활 속 문제로 토의하기

이끌기

토의 주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가능해요.

- 1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떠올려 보고, 그 가운데 해결하고 싶은 것을 토의 주제로 정해 보자.



- 우리 모듬의 토의 주제:

- 위와 같이 정한 까닭:

이끌기

토의는 원탁 토의뿐만 아니라 패널 토의, 심포지엄, 포럼 등 그 종류가 다양해요.

2 토의를 준비해 보자.

- (1) 모듬별로 토의 방식과 역할을 정하고, 토의에서 활용할 자료를 각자 조사해 보자.

토의 방식

역할

자료 조사

- 자료의 종류와 출처:

- 자료의 내용:

- 자료의 활용 계획:

(2) 토의에서 자신이 제시할 의견을 정리해 보자.

 토의 주제:

 현황과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 의견:

• 근거:



3 모둠별로 토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모둠 토의 정리지

현황과 문제점

토의 참가자	발언 내용

원인

토의 참가자	발언 내용

해결 방안

토의 참가자	발언 내용

토의 결론

느낀 점

* 활동지 양식은 교과서 213쪽에 있어요.

4

자신의 토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점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 생활 속의 문제를 토의 주제로 발전시켰는가?	☺ ☹ ☹
•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 ☹
•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 ☹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 ☹ ☹
•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는가?	☺ ☹ ☹

🔍

이끌기

건의문은 문제와 관련된 대상에게 그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글이에요. 건의문을 쓸 때는 글을 읽을 대상을 고려하여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5

토의에서 나온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건의문을 작성해 보자.

제목 :

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반 학생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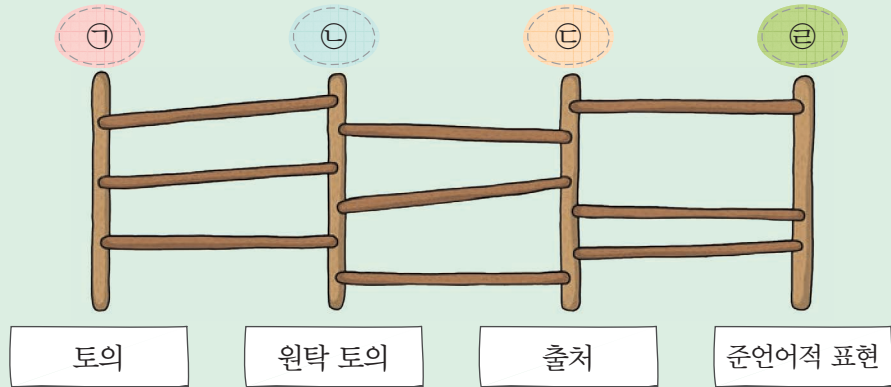
올림



1 사다리 타기 놀이를 하며 ㉠~㉣에 해당하는 개념을 알아보자.

보기

-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
- ㉡ 4~10명의 인원이 둘러앉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 ㉢ 언어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
- ㉣ 사물이나 말 등이 생기거나 나온 근거.



2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맞는 말은 ○에, 틀린 말은 ×에 표시해 보자.

- (1) 토의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 (2) 토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할 수 있다. (○, ×)
- (3)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 ×)

나도 선생님

- 다음의 단어를 활용하여 토의의 개념과 필요성을 짝과 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공동체		문제	해결	현실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토의의 개념을 잘 설명하였나요?		☆☆☆☆☆	☆☆☆☆☆	
• 토의가 필요한 까닭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나요?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현황(現況) • •

ㄱ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예 이 문제의 해결 □□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2) 협력(協力) • •

ㄴ 현재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

예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이용 □□을 파악하다.

(3) 방안(方案) • •

ㄷ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예 다른 모둠에 □□을 부탁했다.

2 다음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올바른 발음에 ○를 표시해 보자.

(1) 식단: 일정한 기간 먹을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계획하여 짠 표.

[식단]

[식탄]

(2) 효과: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로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효:과]

[효:파]

(3) 의견: 어떤 대상에 관하여 가지는 생각.

[의:견]

[으:견]

(4) 종류: 사물의 부문을 나누는 갈래.

[종:뉴]

[종:류]

2 매체로 표현하기

- ☀ 학습 목표
-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매체 활용의 필요성 알기



이해와 탐구

- 인터넷과 영상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 익히기



문제 해결과 적용

-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 모둠별 영상 제작하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의사소통할 때 매체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야. ☐
- ② 언어 예절을 지키며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 3~4학년
- ③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매체를 골라서 표현할 수 있어. ☐ 5~6학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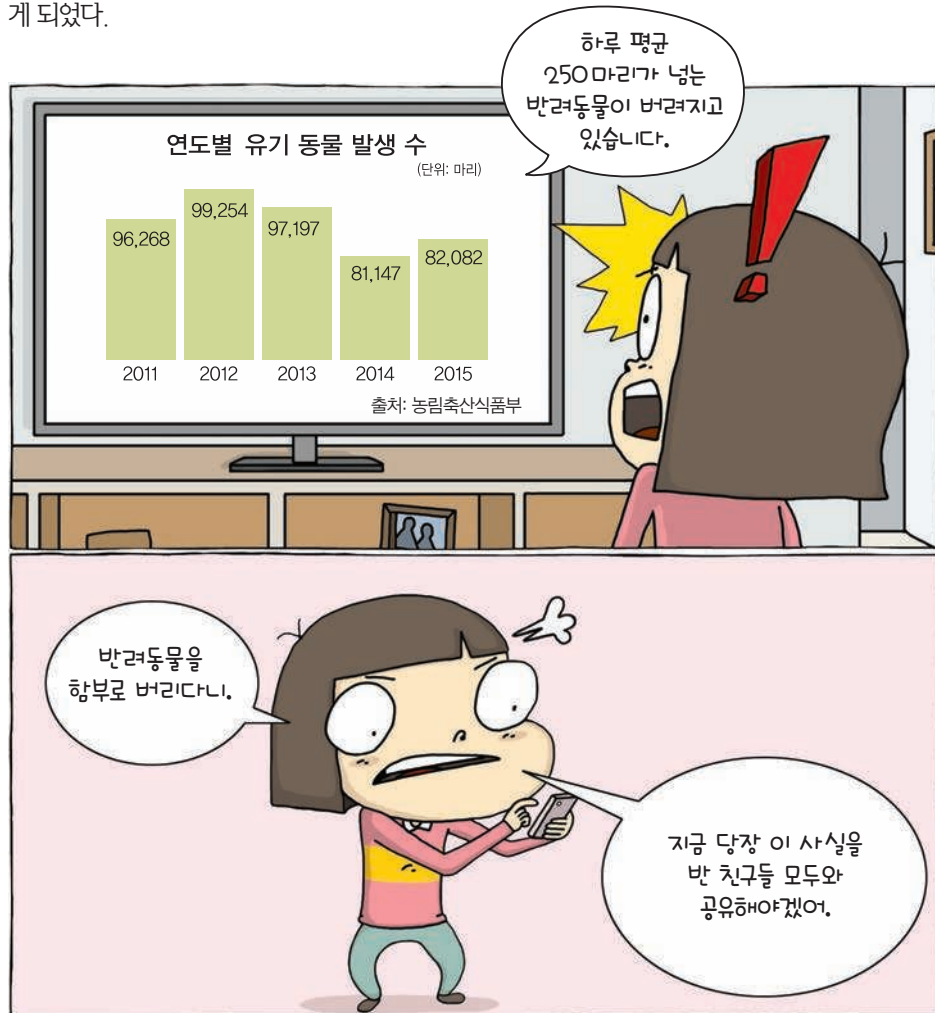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사랑이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해마다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 사랑이가 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휴대 전화를 활용하려는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자신이 사랑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할지 말해 보자.



::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던 유빈이는 학교 축제에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이끌기

매체란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그 종류가 다양해요.

• 인권(人權):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전자 우편

유빈이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영상 발표에 초대하려고 전자 우편을 작성하였다.

> 보내기

미리 보기

임시 저장

00-00-00(목) 19:55

☆

🗑

받는 사람

장소현, 김현민, 이지성, 박소정

주소록

+

제목

내 영상 발표 때 놀러 와!

파일 첨부

학교 축제 오는 길.JPG

📁

안녕. 잘 지내지? 나 유빈이야.^^ 우리 만난 지 꽤 오래 된 것 같아. 내가 이사 가기 전에는 자주 봤는데.....

전자 우편을 보낸 건 영상 발표에 초대하고 싶어서야. 학교 축제에서 내가 만든 영상을 발표하게 되었거든. 시간이 되면 꼭 보러 와. 기간은 다음 주 주말부터 삼 일이고, 오는 길은 파일로 첨부했어.

아, 중국에 있는 소정이에게는 영상을 파일로 보내 줄게.

주소	제목	보낸 시각	확인 시각
☐ 장소현	내 영상 발표 때 놀러 와!	00-00 19:55	00-00 20:09
☐ 김현민	내 영상 발표 때 놀러 와!	00-00 19:55	읽지 않음.
☐ 이지성	내 영상 발표 때 놀러 와!	00-00 19:55	00-00 22:17
☐ 박소정	내 영상 발표 때 놀러 와!	00-00 19:55	00-00 08:23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전자 우편의 특성은 무엇일까?

전자 우편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무엇을 하려고 사용하였는지 자신의 경험을 말해 보자.



온라인 대화

전자 우편을 받은 친구들은 유빈이와 온라인 대화를 하면서 학교 축제 방문 일정을 정했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은 무엇일까?

온라인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였는지 자신의 경험을 말해 보자.

초대

화상

찾기

—

□

×

김현민

지성아, 넌 언제 시간 괜찮아?

15:30

이지성

15:51

이지성

늦어서 미안. 난 일요일!

15:51

장소현

그럼 일요일에 갈까?

15:52

김현민

그러자. 유빈아, 그날 봐!

15:52

정유빈

그래, 기다릴게. 다들 고마워!

1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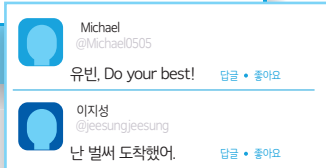
가

😊

📷

📁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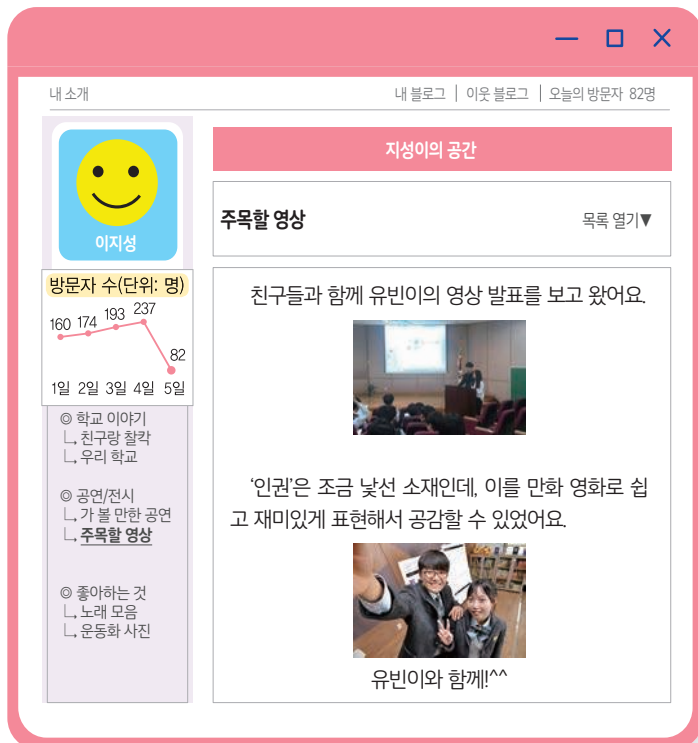


누리 소통망[SNS]

오늘은 학교 축제에서 영상을 발표하는 날. 유빈이는 영상 발표 장소로 이동하면서 긴장되는 마음을 누리 소통망[SNS]에 남겼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의 특성은 무엇일까?

누리 소통망[SNS]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은지 말해 보자.



블로그

평소 공연이나 영상 관람에 관심이 많던 지성이는 유빈이의 영상 발표를 본 소감을 블로그에 남겼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블로그의 특성은 무엇일까?

자신이 자주 방문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 블로그(blog): 누리꾼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리는 웹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댓글

유빈이네 반 친구들은 인터넷
학급 게시판에서 유빈이의 영상
발표를 본 소감을 나누었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의 특성은 무엇
일까?

자신이 유빈이네 반 학생이라면 어떤 댓글을 달지 생각해 보자.



이끌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방식과 종이에 글을 쓰는 일반적인 방식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인터넷 매체가 지닌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1 유빈이와 친구들의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특성을 생각해 보자.

2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때 필요한 태도를 생각해 보자.

(1)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면 이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고쳐 보자.

-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표현: (매체)에서 의 말
- 바람직하게 고친 표현:

이끌기

언어폭력은 말로써 천하고 교양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욕설, 헐뜯는 일을 뜻해요.



• 자정(自淨): 비리 등으로 부패된 조식이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다음 기사를 읽고, 언어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짚고 이야기해 보자.

대화창에 입력된 거친 욕설은 저절로 귀여운 고양이 그림말로 바뀌고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역시 올바른 말로 교정됩니다. 비속어를 교정하려고 만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안○○: 제 또래 친구들이 욕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욕을 쓰지 않고 즐겁게 대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기특한 '자정'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한글날을 맞아 '고운 말 쓰기' 운동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할 만큼 청소년들의 욕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욕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혼내도 소용없습니다.

중학생 김△△: 선생님께서 욕을 쓰지 말라고 하셔도 애들이 계속 욕을 쓰니까 따라서 쓰게 돼요.

이 때문에 청소년 욕 문제를 해결하려면 10대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중학생 이□□: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중학생 박○○: 친구들끼리 더는 욕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욕설 문제. 그 거친 말투 맞은편에는 자신의 친구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 <세종 대왕을 올린 고등학생들>, '스브스뉴스' 2015년 10월 10일 자에서



알아두기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할 때 유의할 점

- 인터넷 예절을 지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방 등을 하지 말아야 함.
-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함.

:: 영상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유빈이는 영상 발표를 한 다음, 친구들에게서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유빈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영상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끌기

이 영상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전하려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다음은 유빈이가 만든 영상 <왜 그럴까?>입니다.

1



2



주변 사람들이 야구를 하는 '나'를 이상하게 바라본 까닭은 무엇일까?

3



4





5



삼촌의 투표를
도우러 간 날.
그런데.....

6



왜 그럴까?

삼촌이 투표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7



삼촌도 남들처럼
투표할 수 있는데!

8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전하려고 하
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끌기

카메라의 거리는 카메라와 대상 또는 배경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대상과 배경이 작게 보이는 먼 거리, 대상이나 배경 일부만 크게 보이는 가까운 거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카메라의 각도는 카메라가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각도, 올려다 보고 찍은 각도, 내려다보고 찍은 각도 등이 있어요.

1 보기를 참고하여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구성 요소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보기

영상 언어는 영상 매체로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할 때 사용하는 복합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로 구성된다. 시각적 요소로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색채 등이 있고, 청각적 요소로는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이 있다.

이 장면에서 환호하는 효과음이 청각적 요소로 사용되었어.



이끌기

제시된 글에 사용된 문자 언어와 영상에 사용된 언어를 내용 전달이나 표현 면에서 비교해 보세요.

2 다음 글과 비교하여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왜 그럴까?

○월 ○일 ○요일 날씨: 맑음.

오늘 5교시는 야구 수업이었다. 야구를 좋아하는 나는, 수업이 있기 며칠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 가며 오늘만을 기다렸다. 수업 전날에는 설렌 나머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야구 수업 때, 나는 야구 복장을 모두 갖춰 입고 야구 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서 운동장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체육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여자가 무슨 야구를 하냐며 변박을 주기도 했다.

왜 그럴까? 남자아이들은 즐겁게 야구를 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

이끌기

재구성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며 다시 구성해 보는 과정이에요.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면 영상에서 전달하는 느낌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세요.

3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구성 요소를 **보기**와 같이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1) 이 영상에서 재구성하고 싶은 요소를 선택하고 그것을 바꾸어 보자.

보기

- **재구성하고 싶은 요소** : 마지막 장면에 사용된 자막
- **재구성하려는 까닭** : 자막이 너무 길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싶다.
- **재구성한 내용** :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 재구성하고 싶은 요소:

• 재구성하려는 까닭:

• 재구성한 내용:

(2) 자신이 재구성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자.



알아두기

● 영상 매체와 영상 언어

영상 매체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디브이디(DVD) 등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매체로 뉴스, 광고, 드라마, 만화 영화 등이 해당함.

영상 언어 시각적 요소(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와 청각적 요소(배경 음악, 효과음 등)로 구성되며, 이를 사용하면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보다 실제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음.

문제 해결 적용



이끌기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은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1 **생활 속에서** 독도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다. 적절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자.

(1)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지 생각해 보자.

• 주제 : 독도의 가치

• 대상 :

• 세부 내용 :

(2) 활용할 인터넷 매체에 ✓ 표시를 하고, 선택한 까닭을 매체 특성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

블로그 ☐

누리 소통망[SNS] ☐

전자 우편 ☐

인터넷 게시판 댓글 ☐

온라인 대화 ☐

• 이 인터넷 매체를 선택한 까닭:

(3)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보자.



이끌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로 표현한 다음, 그 자료를 사진으로 저장하고 출력하여 교과서에 붙여 보세요.

(4)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자.



이끌기

자신이 작성한 글에 관한 답장이나 댓글, 공유나 공감의 횟수 등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자신의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보자.

이끌기

중학교 생활 안내에 관한 주제는 우정, 청소년 언어, 수업, 급식, 안전, 진로, 취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끌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연출은 제작 과정 전체를 이끌고, 작가는 줄거리를 작성해요. 편집 담당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음악·소품 담당은 배경 음악을 준비하거나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는 일을 해요.

2 생활 속에서 예비 중학생들에게 중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자.

(1) 모둠별로 안내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보자.

우리 모둠에서는 영상의 주제를

.....
..... (으)로 정했어.



(2)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영상 제목			
영상 형식	☐ 뉴스 ☐ 기록 영화	☐ 광고 ☐ 만화 영화	☐ 드라마 ☐ 기타
제작 분량	분 초		
역할	연출:	작가:	편집:
	연기:	촬영:	음악·소품:
전체 줄거리			
기획 의도			
촬영 도구 · 소품			

이끌기

영상 대본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만들려고 쓴 글로, 시나리오라고도 해요.

영상 대본은 해설, 지시문, 대사 등으로 이루어져요. 해설은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 등을 설명해 놓은 부분을 뜻하고,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등이나 배경 음악, 카메라의 위치 등을 지시하는 부분이예요. 대사는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이나 혼잣말을 뜻해요.

(3) 다음과 같이 영상 대본을 작성해 보자.

예 채연:(여름이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너에게 실망했어. 우리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깨다니!

여름: (화난 표정으로) 난 사정이 있었다고! 너도 잘한 거 없어. 넌 너만 생각하잖아.

정우: (난감한 표정으로) 애들아, 이러지 마. 오해라니까.

장면 번호	해설, 지시문, 대사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여기에는
이런 지시문을
넣어 보자!



●장면 번호: 영상 대본에서 장면을 구분하려고 사용하는 것으로, 'S#(scene number)'로 나타내기도 함.

이끌기

스토리보드에는 장면에 따른 대사나 자막, 배경 음악, 효과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쓰거나 그리면 돼요.

(4) 다음을 참고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자.

예

장면 번호	장면 줄거리	시각적 요소 (카메라의 거리 및 각도, 자막 등)	청각적 요소 (배경 음악, 효과음 등)
장면 ①	여름이와 채연이가 사소한 오해로 싸우고, 정우가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 카메라의 거리 및 각도: 세 사람이 모두 보이도록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 유지	• 배경 음악: 긴장된 분위기의 배경 음악

장면 번호	장면 줄거리	시각적 요소 (카메라의 거리 및 각도, 자막 등)	청각적 요소 (배경 음악, 효과음 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나의 그림 실력을
기대하렴.



• 스토리보드(storyboard):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에서 주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 순서대로 정리한 것.

🔍 **이끌기**

촬영할 때는 영상 대본과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진행하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편집할 때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막이나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하고 영상 분량과 영상 배치 순서를 조정해요.

(5) 영상 대본과 스토리보드에 따라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해 보자.



이 장면엔
자막을 넣자!



(6) 모둠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 영상의 주제와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났는가?	😊 😐 😞
•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 😐 😞
•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 시각적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 😐 😞
• 배경 음악, 효과음 등 청각적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 😐 😞



1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_____(이)라고 한다.
- (2) _____은/는 누리꾼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리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 (3) 영상 <왜 그럴까?>에는 사회적인 _____(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나’와 삼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 (4) 말로써 천하고 교양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욕설이나 헐박하는 것을 _____(이)라고 한다.

2 다음을 읽고 맞는 말은 ○에, 틀린 말은 ×에 표시해 보자.

- (1) 같은 내용의 글이더라도 활용하는 매체에 따라 전달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
- (2) 인터넷 매체로 소통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
- (3)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시각적 요소에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효과음 등이 있다. (○, ×)

나도 선생님

- 최근에 본 인상적인 광고를 다음을 중심으로 짝과 서로 소개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영상 매체의 특성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광고를 바탕으로 하여 영상 매체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나요?	☆☆☆☆☆	☆☆☆☆☆
• 광고에 사용된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나요?	☆☆☆☆☆	☆☆☆☆☆

1 다음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댓글

㉠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 행동, 글로 주고받는 것.

(2) 의사소통

㉡ 문서나 안건 등에 다른 대상을 더하여 보태는 것.

(3) 공유

㉢ 인터넷에 오른 글에 관해 짚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4) 첨부

㉣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2 말과 관련된 속담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보기

- ㉠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 상황이 어떻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해야 함을 이르는 말.
 ㉢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3)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학급 영상회 열기

모둠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학급 영상회를 열어 보자.



학급 영상회 열기 과정

- 1 모듬별로 제작한 '중학교 생활 안내' 영상을 모두 모으고 상영 순서를 정해요.
- 2 상영하기 전에 자기 모듬에서 만든 영상의 창작 의도를 발표해요.
- 3 다른 모듬의 영상을 감상하면서 내용과 특징 등을 정리해요.
- 4 영상을 모두 본 후, 각 영상의 인상 깊은 점과 아쉬운 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요.
- 5 의견을 모아 수정 사항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상을 수정·보완해요.

1 모둠에서 제작한 영상을 모으고 상영 순서를 정해 보자.

2 영상을 감상해 보자.

(1) 상영하기 전에 해당 모듬은 영상의 창작 의도를 발표해 보자.



(2) 다른 모듬의 영상을 감상하며 영상의 내용과 특징, 느낀 점 등을 정리해 보자.

	영상의 내용과 특징	느낀 점
모듬 이름: 영상 제목:		
모듬 이름: 영상 제목:		
모듬 이름: 영상 제목:		
모듬 이름: 영상 제목:		



3 영상을 모두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도움말 평가 기준에 따라 기록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평가 기준
• 내용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 청각적(음악) 요소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 시각적(미술) 요소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모듬 이룸:

모듬 이룸:

모듬 이룸:

모듬 이룸:

모듬 이룸:



4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영상을 수정·보완해 보자.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1) 토의하기

-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토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점검



(2) 매체로 표현하기

- 인터넷 매체나 영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나의 점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적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 보자.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른 핵심 역량을 확인해 보자.

☐☐☐☐☐☐



청소년이 만든 영화 살펴보기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창한 작업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이 직접 영상 언어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굿모닝 로니〉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청소년이 만든 20분짜리 영화로, 자신의 방황과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주인공인 로니는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되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를 받아 점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나 로니는 한동네에 사는 민지가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보다〉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제작한 15분짜리 영화로, 학생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룬 작품이에요.

같은 반 친구인 민정이는 준원이를 좋아하고, 준원이는 수지를 좋아해요. 그러나 준원이는 수지를 바라보기만 하고 소심하게 행동해요. 이런 모습을 본 민정이는 준원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언니라면



〈언니라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제작한 13분짜리 단편 영화로, 미술을 하는 동생 주은이와 재수생 언니 수정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언니는 늘 한심한 생각만 하는 동생이, 동생은 건강도 챙기지 못하면서 자신만을 나무라는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플 것을 알면서도 라면을 찾는 수정이 때문에 둘은 매일같이 싸우기 일쑤죠. 둘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삶이 웹과 같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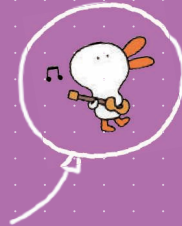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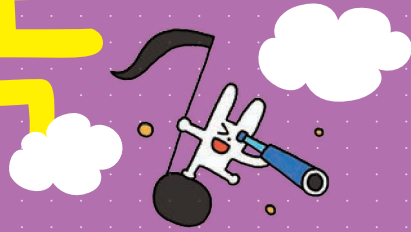
〈삶이 웹과 같다면〉은 뉴질랜드 십 대 소년이 제작한 4분짜리 단편 영화로, 만화 영화로 제작되어 더욱 인상적이에요.

청소년들의 온라인 소통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창의 특독

청소년 영화제 누리집이나 영상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를 감상해 보자.

부록



- 활동지
- 교과서 더 잘 알기
- 자료 및 사진·삽화 출처





활동지 | 독서 일지

관련 활동

1. 독서와 연극 55쪽 ‘독서 일지 쓰기’

1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읽은 날짜		읽은 부분	
월	일	쪽 ~	쪽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점			
책을 읽으면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			

읽은 날짜		읽은 부분	
월	일	쪽 ~	쪽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점			
책을 읽으면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			



활동지 | 통일성 있는 글 쓰기

관련 활동

2. 간추리고 쓰고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107쪽 '표현하기'

1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통일성 있는 글 쓰기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sets of dashed lines for writing.



활동지 | 고쳐쓰기

관련 활동

2. 간추리고 쓰고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107쪽 '고쳐쓰기'

1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친구들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성 있는 글이 되도록 고쳐 써 보기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15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활동지 | 모둠 토의 정리지

관련 활동

4. 다양한 의사소통 (1) 토의하기 180쪽 '토의하기'

1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현황과 문제점

토의 참가자	발언 내용

원인

토의 참가자	발언 내용

 해결 방안

토의 참가자	발언 내용

 토의 결론

 느낀 점



교과서 더 잘 알기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 그리고 배경지식을 더 잘 알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1단원

독서와 연극



▲ 등나무와 철

갈등의 개념 이해

철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藤)’이 합쳐진 말로,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문학 작품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마음이나, 인물과 인물 또는 외부 대상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 등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말한다.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며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갈등의 종류

-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거나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 등이 있음.
-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외부 대상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
 -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 간 성격과 가치관의 대립
 -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윤리·제도·풍습 등의 대립
 -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과 태풍, 홍수 등 자연환경의 대립
 -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이 자신의 운명에 맞섬.

현덕(1909~?)

“호두형으로 조그만 항구 한쪽 끝을 향해 머리를 들고 앉은 언덕, 그 서남면 일대는 물매가 밋밋한 비탈을 감아 내리며, 거적문 토담집이 악착스럽게 닳지닥지 붙었다. 거의 방 하나에 부엌이 한 칸, 마당이랄 것이 곧 길이 되고 대문이자 방문이다. 개미집 같은 길이 이리 굽고 저리 굽은 군데군데 꺼먼 잿더미가 쌓이고, 무시로 매캐한 가루를 날린다.”

- <남생이>에서

현덕의 본명은 현경윤이다. 현덕이라는 이름은 그가 문학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쓰던 필명이다. 그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적 생활이 고달팠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도와 인천 등의 친척 집을 떠돌다가 서울로 옮겨 제일고등보통학교를 다녔는데, 1년 만에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떠돌던 때 김유정을 만나 문단에 발을 들이게 된다.

그는 1927년 한 신문사 주최의 독자 공모에 <달에서 떨어진 토끼>로 당선하고, 이후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남생이>가 당선하면서 이름이 알려진다.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다 사라진다. 지금도 현덕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참한 현실을 그린 <남생이>, <두꺼비가 먹은 돈> 등이 있으며, 무기력한 지식인이 바라보는 도시의 타락상을 그린 작품으로 <골목>, <군맹> 등이 있다.

1930년대 시대상과 관련된 배경지식

- 안반: 흰떡이나 인절미 등을 치는 데 쓰이는 받침대로, 병안이라고도 한다. 안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통 한쪽은 반반하게 두고 다른 한쪽은 우묵하게 파서 우묵한 곳에 떡을 놓고 떡메로 찢은 다음 옆의 반반한 판에서 썰도록 만든다.
- 둥구미: 곡식이나 채소를 담고 머리에 이거나 들어서 운반하며, 콩이나 팥 같은 곡물을 담아서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다.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썼기 때문에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하다. 대체로 곡물을 담아서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가장 일반적이다.
- 화폐: 1930년대 사용되던 화폐로 일 원, 오 원, 십 원, 백 원권이 있었다. 사진 속 사람은 조선 말기 인물인 윤양 김윤식의 초상으로, 이름 높은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 안반



▲ 둥구미



▲ 1930년대의 화폐



엄인희(1955~2001)

서울예술전문학교(지금의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하고, 1981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각각 〈부유도〉와 〈저수지〉가 당선하며 등단하였다.

초창기 여성 희곡 작가로서 1980년대 후반까지 주로 노동 운동과 관련된 문화 예술 활동을 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작품과 권력과 자본에 억눌린 여성의 성(性)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썼다.

희곡, 연출을 겸한 작품 활동을 활발히 벌이다가 2001년 46세의 나이에 폐선암으로 죽는다. 대표작으로는 〈작은 할머니〉, 〈생과부 위자료 청구 소송〉, 〈하늘 아래 방 한 칸〉 등이 있다.

그녀의 아동극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보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즐거움으로써 더욱 쉽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토끼전〉

작자·창작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토끼와 자라, 물고기 등의 동물을 의인화하여 쓴 우화 소설이자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작품이다.

《삼국사기》〈열전〉에서 고구려에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던 김춘추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고구려의 신하 선도해가 감옥으로 찾아와 탈출을 넌지시 권하며 해 준 ‘토끼 간’ 이야기인 〈구토지설(龜兔之說)〉이 근원 설화이다. 여기에 다른 설화들이 결합하여 판소리 〈수궁가〉로 구전되었고, 조선 후기에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 〈토끼전〉으로 발전하였다.

〈토끼전〉은 약 100여 종의 이본이 전해지는데, 그 명칭 또한 다양하여 〈별주부전〉, 〈별토가〉, 〈수궁가〉, 〈토공전〉, 〈토생전〉, 〈별토전〉, 〈토의 간〉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른데, 커다란 줄거리는 그대로 하면서 전승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 대부분은 시대가 달라져도 결말이 바뀌지 않고 서로 비슷한 결말을 보여 준다. 춘향은 이 도령을 다시 만나 사랑을 이루며, 심청은 효를 다하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 흥부가 부자가 되고, 놀부가 파멸하는 결말도 한결같다. 판소리계 소설들의 이와 같은 결말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토끼전〉은 토끼가 수궁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결말은 비슷하지만, 자라가 맞이하는 결말은 이본에 따라 다르다. 이본으로 재창작된 작품들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되기도 하고, 결말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독자의 상상에 맡기며 끝맺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토끼전〉의 결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읽힌 가람본 <별토가> 계열: 토끼를 놓친 자라는 자신의 충성심이 부족하다 하여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장렬하게 목숨을 끊는다.
- 개화기 신소설 이해조의 <토의 간> 계열: 자라의 충성심에 감동한 신선이 나타나 불로초를 준다. 용왕은 신선에게 얻어 온 불로초를 먹고 병이 낫는다.
- 일제 강점기 <수궁가> 계열: 토끼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할 뿐, 자라와 용왕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이 밖에 다른 이본들: 토끼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자라가 율화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용왕이 위엄을 지키며 엄숙하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전 소설

세종 때 창제된 훈민정음과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한문 서적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발행되었다. 또 중국 문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오랜 설화 문화, 패관 문학, 가전체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중국의 [•]전기 문학의 영향을 받아 고전 소설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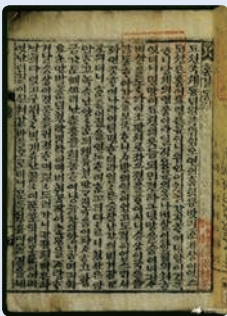
그 특징을 보면 설화의 단순하고 막연한 구성에서 벗어나 허구성을 갖추어 형식과 내용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전기성(傳奇性)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기존의 사회 질서가 흔들리면서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한글이 보편화된다. 이에 따라 평민 계층이 문학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운문 중심에서 산문 중심으로 문학의 흐름이 변하여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가 전개된다.

<홍길동전>을 시작으로 개인의 체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기록 문학도 함께 발달하였다.

기존의 의식에만 집중했던 성리학에 반대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실학파의 문학이 등장한다. 특히 박지원은 현실에 대한 풍자와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 전기(傳奇): 중국 당나라 때 발생한 문어체 소설. 대체로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보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내용으로 한다.



▲ <홍길동전>

2단원

(1) 요약하며 읽기

대한민국 극지연구소의 기지 소개

■ 남극세종과학기지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남극 조약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1988년 2월 남극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여름 연구대는 남극의 여름에만 기지에 머물며 연구를 하고, 겨울 연구대는 1년간 머물면서 기지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며 환경 변화 관찰, 해양 생태계 및 자원 특성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한다.

■ 북극다산과학기지

북극의 환경 및 기후 연구를 위해 2002년 4월 개설하였다. 북극다산과학기지에서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기간에만 연구한다. 이곳에서는 주로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극권 국가와 함께 대기 관측 연구도 하고 있다.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남극 대륙 중심부로 진출하기 위해서 2014년 2월에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이은 제2의 남극 대륙 기지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설립하였다. 기후 변화 연구, 지형 및 지질 조사, 고층 대기, 우주 과학 연구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두 개 이상의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3단원

(1) 언어의 본질



책 소개 - 앤드루 클레먼츠, 《프린들 주세요》

만약 어떤 아이가 펜을 자기 혼자 ‘프린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책은 아이디어가 기발한 소년 닉이 ‘펜’이라는 말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엄격한 그레인저 선생님과 언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어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언어와 문법, 규율, 전통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과 학문은 창조적인 생각에 따라 성장한다는 것을 닉과 그레인저 선생님의 갈등을 통해 보여 준다.

4단원

(2) 매체로 표현하기

독도는 어떤 곳인가?

독도는 언제 형성되었을까?

독도는 약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 사이에 해저 2,000m 이하에서 화산 폭발로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이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1,000m 이상의 이사부 해산, 심흥택 해산, 안용복 해산이 있다. 이 가운데 이사부 해산이 가장 오래되었고, 울릉도에 가까울수록 나중에 형성된 해산이다.



▲ 안개 속 독도



▲ 해국



▲ 갯이갈매기



▲ 가스 하이드레이트

독도의 기후는 우리 고장과 어떻게 다를까?

동해에 있는 독도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 서울보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이다. 또한, 비와 눈이 자주 내려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독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으로 습도가 높고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독도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독도는 지형이 대부분 급경사이고, 토양층이 덜 발달하여 독도에서는 동식물이 살기가 어렵다. 독도에서 자라는 식물로는 열악한 환경에 잘 견디는 해국, 술패랭이, 왕호장근, 섬기린초, 초종용, 소리쟁이 등 50~60종이 있다. 독도는 동해 일대를 이동하는 새들의 휴식처이자 번식지이다.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약 139종으로 갯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 알락할미새, 섬참새 등이 대표적이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을까?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가 만나는 조정 수역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하여 형성된 지하자원으로, 주로 수심 300m 이상인 깊은 바다에서 발견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다른 연료보다 공해가 적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 《중학교 독도 바로 알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고자 2008년에 설립되었다. 동해와 독도의 표기 오류 바로잡기, 독도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도 전시회 및 독도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우리 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독도연구소 누리집(<http://www.dokdohistory.com>)에서는 독도 홍보 영상물과 교육 자료, 독도 사진, 독도 웹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및 사진·삽화 출처

자료 출처

단원		쪽	제재	저자	출처
1. 독서와 연극	독서와 연극	14	하늘은 맑건만	현덕	《하늘은 맑건만》(문학과지성사, 2011, 202~220쪽)
		38	토끼와 자라	엄인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곡》(북스토리, 2011, 31~42쪽)
		58	토끼전	작자 미상	《토끼전-피주머니 배 속에 차고 계수나무에 간 달아 놓고》(나라말, 2008, 134쪽)
2. 간추리고 쓰고	(1) 요약하며 읽기	76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	고현덕 외	《살아 있는 과학 교과서 1》(휴머니스트, 2015, 96~99쪽)
		82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	김예동	《국제신문》(2016년 2월 22일 자)
		86	오봉산의 불	작자 미상, 이만기 엮음	《한국의 대표 설화》(빛샘, 1996, 157~159쪽)
		90	경제 활동	조영달 외	《중학교 사회 1》(2013, 240~241쪽)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99	날마다 정보를 전해 주는 신문	박상하	《신문을 읽으면 공부가 즐겁다》(스마트주니어, 2009, 8쪽)
		99	신문이 수학·과학 성적도 높여	박승혁	《조선일보》(2015년 10월 27일 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926&cid=40942&categoryId=31755)
		99	신문 읽기 고수의 신문 읽기 방법	최현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블로그 다독다독 (http://dadoc.or.kr/1383)
		99	신문 읽는 경영인 ○○○		와이티엔(YTN)(2015년 11월 25일 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734411&sid1=001)
		99	신문의 인쇄		두산백과두피디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926&cid=40942&categoryId=31755)
		109	신문		《매일경제》(2016년 9월 2일 자)
3. 언어의 세계	(1) 언어의 본질	124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이용숙 옮김	《책상은 책상이다》(위즈덤하우스, 2001, 26~27쪽)
		130	‘짜장면’, 표준어 됐다	김태식	《연합뉴스》(2011년 8월 31일 자)
		131	프린들 주세요	앤드루 클레먼츠, 햇살과 나무꾼 옮김	《프린들 주세요》(사계절, 2001, 49~57쪽)
	(2) 단어의 갈래	152	소나기	황순원	《학/읽어 버린 사람들》(문학과지성사, 1991, 13~14쪽)
		154	하늘바라기	이단옆차기 작사	〈하늘바라기〉(2016)

📖 자료 및 사진·삽화 출처

단원		쪽	제재	저자	출처
4. 다양한 의사소통	(2) 매체로 표현하기	185	연도별 유기 동물 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http://ebook.mafra.go.kr/preview/viewer/main.php?site=2&menuno=1&previewno=6427&iframe=0&dlbt=)
		189	세종 대왕을 올린 학생들	하대석 외	스브스 뉴스(2015년 10월 10일 자)
부록	교과서 더 잘 알기	215	남생이	현덕	《21세기 한국 소설-최정희 현덕 허준 김사랑》(창비, 2009, 71쪽)
		217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	김종철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휴머니스트, 2006, 101~124) 재구성
		219	대한민국 극지연구소의 기지 소개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안내서(극지연구소, 2013, 11~15쪽)
		220	독도는 어떤 곳인가?	동북아역사재단	《중학교 독도 바로 알기》(동북아역사재단, 2016, 18~22쪽)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사진·삽화 출처

단원		출처
표지		사진 산_셔터스톡
1. 독서와 연극	창의·융합 활동	사진 66쪽 <뮤지컬 홍길동> 포스터_국립중앙박물관
	교실 밖 국어 체험	사진 70쪽 벽, 그림자_셔터스톡 / <평강 공주와 온달 바보> 공연 장면과 포스터_서울역사박물관 / <춘향이 온다> 공연 장면과 포스터_국립극장 71쪽 <심청> 포스터_유니버설발레단 / <심청> 공연 장면_연합뉴스 / <공무도하> 포스터_국립국악원 / <공무도하> 공연 장면_연합뉴스
2. 간추리고 쓰고	(1) 요약하며 읽기	사진 76쪽 남극_게티이미지 78쪽 펭귄_셔터스톡 79쪽 북극곰_셔터스톡 82쪽 남극세종과학기지_게티이미지 83쪽 해양 조사 시험감 채취_극지연구소 안내서 / 남극세종과학기지 대기 빙하 관측동_극지연구소 안내서 / 쇄빙 연구선_게티이미지 95쪽 빙산_게티이미지 / 깨_게티이미지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사진 99쪽 <신문을 읽으면 공부가 즐겁다> 책 표지_스마트주니어 / 신문_게티이미지 / 모니터_게티이미지 / 블로그_언론진흥재단 블로그 다독다독 / 텔레비전_게티이미지 / 인쇄기_셔터스톡
	창의·융합 활동	사진 110쪽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안 베르메르》(마로니에북스, 2005, 68쪽)
	교실 밖 국어 체험	사진 114쪽 전자 기기 1_셔터스톡 / 등갈비_게티이미지 / 영사기_셔터스톡 /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공식 누리집(www.disney.co.kr/movies/insideout2015) 115쪽 전자 기기 2_셔터스톡 / 축구 경기_연합뉴스 / 전자 기기 3_셔터스톡
3. 언어의 세계	(1) 언어의 본질	사진 128쪽 김_토픽이미지스 / 밥_게티이미지 / 김밥_토픽이미지스 133쪽 필기구_게티이미지
	(2) 단어의 갈래	사진 145쪽 자장면_게티이미지 152쪽 원두막_이미지 코리아 155쪽 모니터_게티이미지 / 한복 입은 여아_게티이미지
	창의·융합 활동	사진 158 큐드럼 1_큐드럼 누리집(http://www.qdrum.co.za) / 큐드럼 2_큐드럼 누리집(http://www.qdrum.co.za)
	교실 밖 국어 체험	사진 163 몽게구름_게티이미지 / 새털구름_게티이미지 / 안개구름_게티이미지
4. 다양한 의사소통	(1) 토의하기	사진 174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행사_연합뉴스
	(2) 매체로 표현하기	사진 189쪽 바른말 키패드_스브스뉴스 195쪽 독도 홍보 영상_연합뉴스 / 독도 홍보 광고_연합뉴스
	교실 밖 국어 체험	사진 206쪽 <굿모닝 로니> 포스터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 <굿모닝 로니> 장면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 <바라보다> 장면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207쪽 <언니라면> 장면 1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 <언니라면> 장면 2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 <삶이 웹과 같다면> 장면 1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 <삶이 웹과 같다면> 장면 2_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누리집
부록	교과서 더 잘 알기	사진 215쪽 등나무와 칠《우리 생활 속의 나무》(어문각, 2008, 251쪽) 216쪽 안반_국립민속박물관 / 동구미_국립민속박물관 / 화폐_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217쪽 엄인희_여성신문 218쪽 <홍길동전>_한국학중앙연구원 219쪽 《프린들 주세요》책 표지_사계절 220쪽 안개 속 독도_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해국《중학교 독도 바로 알기》(동북아역사재단, 2016, 21쪽) / 갯이갈매기_《중학교 독도 바로 알기》(동북아역사재단, 2016, 21쪽) / 가스 하이드레이트_《중학교 독도 바로 알기》(동북아역사재단, 2016, 22쪽)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 이 책에 실린 저작물들은 중학생의 학습 수준 및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내용이나 표현을 부분적으로 바꾸기도 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저자나 그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합니다.

검정심의회

위원장 | 원진숙(서울교육대학교)

간사 | 박혜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내용 조사〉 강연호(원광대학교)	김명준(한림대학교)	김성진(대구대학교)	김지연(명지대학교)
김현숙(성남외국어고등학교)	송정윤(서울장안중학교)	오윤선(한국교원대학교)	윤장규(도래울고등학교)
임천택(부산교육대학교)	장은섭(전북만경중학교)	정오현(덕소고등학교)	정학재(보성여자중학교)
조재윤(목원대학교)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하상일(동의대학교)	허재영(단국대학교)
〈표기·표현〉 방영심(상명대학교)	박정식(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손광식(성균관대학교)	정경미(명지대학교)
정은영(대인고등학교)	조지연(고려대학교)	조현주(경희대학교)	

검정위원 | 강보선(대구대학교)

김수현(부산화명중학교)

이진호(서울대학교)

김경환(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서수현(광주교육대학교)

정다운(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남희(우석대학교)

우문영(천성중학교)

홍인선(대전과학고등학교)

김대희(원광대학교)

윤구혁(효문중학교)

홍현정(영주제일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진용(검정심사관리위원회 위원장)	차조일(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대표)	이근호(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안종욱(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윤지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김종윤(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전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정학준(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대표)	피교철(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지원팀장)
양미경(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진행팀장)	이준석(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운영팀장)	이상준(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허재영(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임동주(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개발 책임 | 정장아

편집 | 윤양희, 김혜원, 이수경, 심현진, 백안나, 문이슬, 하남규

디자인 | 오영숙, 원유희

일러스트·삽화 | 고원주, 김인하, 김혜란, 박혜림, 신동민, 유기훈, 이종균, 이진우, 이한아, 정소연, 정지영, 조성호, 조태겸

사진 촬영 | 필름피아

조판 | 헤드기획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중학교 국어 1-2

초판 발행 | 2018. 3. 1.

지은이 | 신유식 외 9인

발행인 | (주)미래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인쇄인 | (주)미래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정가 원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 ㈜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전화 1800-8890 전송 (02)541-8150

공급 업무 대행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10881)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신촌동 734-1)

개별 구입 문의 | 누리집 주소 www.kitbook.com 전화 (031)956-85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ISBN | 979-11-6233-261-0